

〈세븐일레븐 운영사〉

## ‘내우외환’ 롯데, 코리아세븐 지분 판다

법정 리스크로 조기상장 난망  
현금 마련 위해 프리IPO 추진  
매가가 3000억~4000억 추산

롯데그룹이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운영사)의 상장 전 지분 매각(프리 IPO)을 추진한다. 이번 프리 IPO는 그룹 오픈 리스크로 상황이 어려워 지자 조기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상장하겠다고 밝힌 계열사 중 코리아세븐의 프리 IPO를 우선적으로

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략적 투자자(FI)를 모집 중이며 유안타증권 등 비롯한 복수의 증권사들이 코리아세븐 지분 투자를 위해 자금을 모으고 있다. 프리 IPO란 정식 기업공개(IPO)를 하기 전에 미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받는 것을 말한다. 몇 년 내 상장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미리 받는 것인데, 만약 상장하지 못하면 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에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물량은 롯데로지스틱스 등 주요 주주가 보유한 지분 20~30%다. 매각 가격은 3000억~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IB업계는 코리아세븐의 적정 시가총액을 1조4000

억~1조6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롯데그룹이 코리아세븐의 프리 IPO를 추진하는 것은 이 회사의 조기 상장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롯데그룹은 장기간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롯데슈퍼·코리아세븐을 총괄하는 소진세 사장 역시 기소됐다. 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특검이 삼성과 롯데 등을 겨냥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부담이다. 이 그룹 계열사가 올해 검찰 수사로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한 것과 같은 외부 리스크가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코리아세븐의 프리 IPO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롯데그룹은

올해 2400억 원의 회사채를 손상환했다. 이 기업집단이 차환하지 못한 회사채 금액은 내년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차환하지 못한 채권을 포함, 2017년 총 회사채 만기는 3조 원 규모다. 이 중 코리아세븐의 최대 주주인 롯데쇼핑은 43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2017년 도래한다. 내년 채권 금리가 오를 것을 고려하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코리아세븐의 에비타(EBITDA·상각 전 영업이익)는 2015년 기준 1000억 원 규모로 현금 창출력이 뛰어나다”며 “다수의 투자자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아·최재혁·이꽃들 기자 kakim@

연말 임기 마치는 반기문 총장·유엔총회 고별연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왼쪽)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안토니우 구테흐스 신임 사무총장과 포옹하고 있다. 이날 말로 10년의 임기를 마치는 반 총장은 이날 고별 연설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한 것은 내 평생의 영광이었다”면서 “내 마음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여기 유엔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을 받는 반 총장은 한국 국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날 연설을 마무리했다. 포르투갈 총리 출신인 구테흐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 총장에 이어 유엔을 이끌게 된다. ▶관련기사 14면

## 중국엔 넘죽 한국엔 갑질

아이폰6S 전원 꺼짐에  
애플 ‘차별적 사과’ 논란

애플이 최근 아이폰 6S 꺼짐 현상과 관련해 이웃 나라인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정중히 사과했지만, 국내에선 영문 사과문에 그치면서 ‘갑질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6S 배터리 교환과 관련한 애플코리아의 국가별 대응방향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달 20일 아이폰 6S 불량 배터리의 무상 교환 프로그램을 한국 웹사이트에서 영문으로만 공지해 반죽을 샀다가 뒤늦게 한국어 공지문으로 교체했다. 반대로 8일 중국에서는 애플의 전 세계 애플서비스(AS) 담당 부회장 일행이 중국소비자 협회를 방문해 최근 제기된 아이폰 결함 문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사죄했다.

애플이 이번에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2013년 3월 중국 정부와의 갈등에 따른 학습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 언론은 애플이 중국 소비자들을 2등 시민 취급한다며 비난 여론을 형성했다. 급기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애플에 대한 감독 강화를 밝혔고, 소비자협회가 비판 성명을 발표해 애플이 납작 앉으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와 달리 애플은 한국에서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거나 규제 당국의 강력한 감독을 경험한 전례가 없다. 애플코리아는 또 한국에서 매년 8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챙기면서도 고용과 투자, 고객 서비스에 모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2009년께 조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이후 실적, 법인세 납부 내역 등 주요 사업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한국 시장의 규모 차이 때문에 차별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 전체 매출에서 중화권 비중은 22.5%에 달한다. 연간 아이폰 판매량 290만 대를 토대로 역산한 애플코리아의 올해 매출을 약 26억5400만 달러(3조 944억 원)라고 할 때, 중화권은 한국의 18배에 육박하는 주요 시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국가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nova@

## 생산인구 줄고 결포·출포...경제동력 ‘고갈’

〈결혼 포기·출산 포기〉

통계청 ‘사회동향’ 보고서

생산가능인구 3763만명 정점

2065년엔 2062만명 수준에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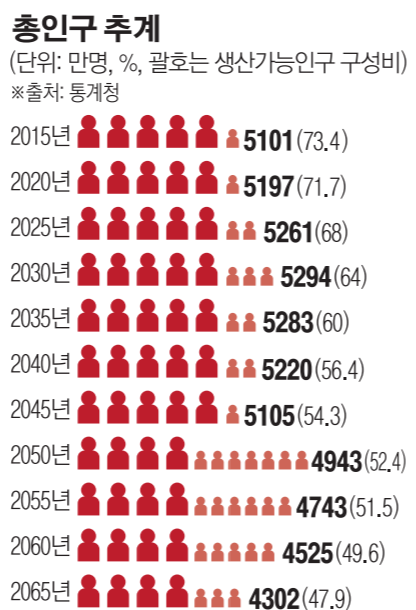
출생아 작년 43만→50년후 26만명

‘개천서 용 안난다’ 비판도 팽배

우리 사회가 미래 성장동력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급증하고 있다. 본인 세대와 자녀 세대에서 더 이상 성공은 없다고 비판하는 기조도 팽배해 가는 추세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63만 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에 들어간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 명, 2030년대는 연평균 44만 명씩 줄어든다. 2065년에는 2062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소년에서



생산가능인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줄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43만 명인 출생아는 2065년 26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2029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다.

당장 올해 들어 9월까지 혼인과 출생은 역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다. 1~9월 누적 혼인은 20만5900건으로 2000년 집계 이래 최저치다. 연간 30만 건을

처음 밑돌 전망이다. 누적 출생 역시 31만7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줄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양극화로 인한 결혼 및 출산 포기, 출산율 저하, 한창 일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 젊은 층이 지금 한국에서는 당장 먹고살기조차 힘들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이 39.3~76.4% 수준에 그쳤다.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과 복지 수준(사회보험 및 노동조합 가입률), 고용안정성(평균 근속연수)은 정비례했다.

이에 직업과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최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1994년 12%에서 지난해 20%로 올라섰다. 5가구 중 1가구가 높아질 가능성에 60%, 자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50%가 각각 비판적이라고 답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 16.6%, 여성 13.7%에 그쳐 전망을 더 어렵게 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LG, 유럽 3대 MBA ‘스페인 경영대학원’에 배웠다



〈때디 밀러 교수〉

## “혁신적 조직 관리로 정치 리스크 극복을”

탄핵정국 국내상황, 스페인과 비스무 정부 상대에서도 경제운용은 선방  
‘타당함의 착시’ 언급하며 혁신 강조  
관리자 없앤 美 자포스 사례도 들어

LG그룹이 유럽 3대 경영대학원 중 하나인 스페인 ‘이에세(IESE)’로부터 정치 리스크 극복 방안을 배웠다.

LG그룹에 따르면, 12일 IESE 경영대학원 페디 밀러(사진) 교수가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를 방문, LG경제연구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연했다.

이날 밀러 교수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어 조직 관리와 기업 및 인사 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밀러 교수는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심리학자 다니얼 카너먼이 제기한 ‘타당함의 착시(illusion of validity)’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기업들이 해 오던 채용의 관습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타당함의 착시란 일관적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고 더 나아가 타당해 믿을 만하다는 오류를 의미한다. 같은 대답을 한다고 꼭 믿을 만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밀러 교수는 “이스라엘 군대의 경우도, 승진이나 진급을 시킬 때 새

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면서 “결국 일변적으로 잘 안 하는 방식 속에 혁신이 숨어 있다”고 조언했다.

밀러 교수는 영국 런던비즈니스스쿨(LBS), 프랑스 인시아드(INSEAD)와 함께 유럽 3대 경영대학원으로 꼽히는 스페인 IESE 경영대학원에서 조직 관리와 기업혁신 강의를 맡고 있다. 그는 이탈리아 명품업체 불가리,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와 가정용품 전문기업 행켈, 영국 보험사 스탠다드생명 등 유럽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업 혁신을 강연하며,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재계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식물 정부와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 사정과 스페인 현지 사정이 비슷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스페인에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 총선을 치르기도 정부가 구성되지 못해 약 10개월간 ‘무정부’ 상태에 놓인 바 있다. 그럼에도 스페인 경제는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정부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셈이다. 밀러 교수는 미국 온라인 쇼핑 스타트업 ‘자포스’ 사례도 이날 강연에서 언급했다. 자포스는 혁신적인 문화를 되찾았으며 관리자를 없앤 것으로 유명하다.

송영록 기자 syr@

## 출발도 전에 삐걱대는 ‘협치’

여야정 협의체 합의 20분 만에  
원내대표 사퇴 선언 난항  
朴정부 주요정책 마찰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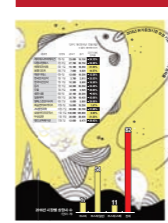
여야 3당이 12일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합의 20분 만에 여당 원내지도부가 당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면서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 공백 최소화화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 여부 결정까지는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그동안 ‘과도 정부’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여야와 정부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는 취지다. 여야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춘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는 실무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우선 협의체 참석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민의당은 각 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의장과 각 당대표,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 지도부는 협의체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협상,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수정 여부를 놓고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의중 기자 zerg@

## 마켓&마켓 ▶ 18-19 2016년 IPO 결산



올해 IPO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산밥캣의 공모를 끝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IPO 기업 수는 82곳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공모금액은 6조2722억 원으로 2010년 이후 6년 만에 6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 70% 이상의 주가가 공모가에 미치지 못했으며 코스닥시장의 상장 실적도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내년 IPO시장은 대선 및 경기 부진 등 변수가 많아 호황몰이의 상장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빈 원장 ▶14 김소연 대표 ▶23

마켓 히어로 ▶20  
코스닥 상장 솔루션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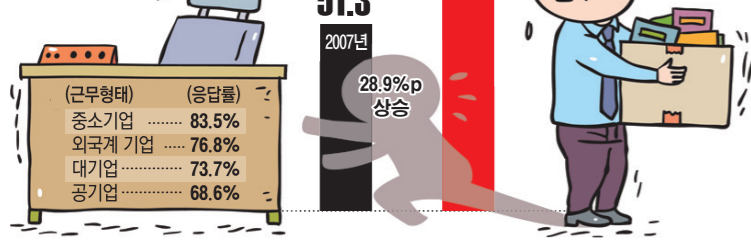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데이터 뉴스 Data News

직장인 고용 불안감

단위: % (정규직 직장인 1,065명 대상 조사)  
\* 출처: 잡코리아



직장에 뼈 못 문겠다... 정규직 80.2%가 "고용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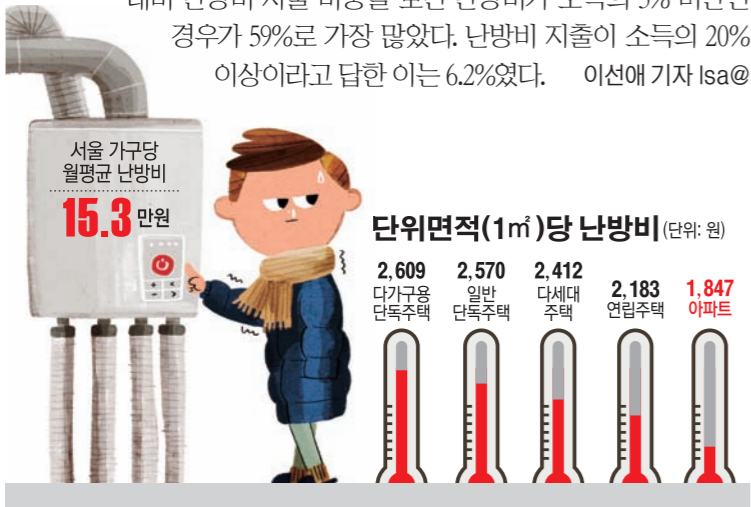
직장인의 고용 불안감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정규직 직장인 106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0.2%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9.8%에 그쳤다.

2007년 정규직 직장인 1184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에서는 51.3%가 자신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10년 만에 28.9%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성시 구조조정과 조기퇴직 관행이 늘어나면서 직장인 사이에 고용불안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으로 잡코리아는 분석했다. 응답률을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 직장인(89.3%)의 고용 불안감이 가장 높았지만, 30대(83.6%)와 20대(69.9%)도 만만치 않았다. 근무 기업 형태를 보면 중소기업(83.5%), 외국계 기업(76.8%), 대기업(73.7%) 순이었다. 공기업도 68.6%로, '신의 직장' 등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기계·철강·조선·중공업(93.4%)과 건설업(91.7%) 종사자의 고용불안감이 가장 높았으며, 금융업(89.7%), 전기전자업(87.0%), 제조업(86.7%)도 높은 편이었다. 교육·서비스업(72.0%)과 IT·정보통신업(75.2%) 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었다. 이선에 기자 isa@

살 떨어지는 서울 난방비... 월 평균 15만3000원

서울 가구당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가 15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13일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까지를 기준으로 한 지난해 서울복지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월 10만~20만 원을 지출하는 가구가 49.2%로 가장 많았다. 20만~30만 원이 24.5%, 10만 원 미만 20.3%, 30만 원 이상 6% 등의 순이었다.

월평균 난방비를 주택 형태별로 살펴보면 일반단독주택과 아파트가 16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연립주택 16만 원, 다세대주택 14만4000원, 다가구용 단독주택 13만6000원, 오피스텔·고시원 11만30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1㎡당 난방비를 따져보면 오히려 아파트가 1847원으로 가장 낮았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2609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단독주택 2570원, 다세대주택 2412원, 연립주택 2183원 순이었다. 가구 소득 대비 난방비 지출 비중을 보면 난방비가 소득의 5% 미만인 경우가 59%로 가장 많았다. 난방비 지출이 소득의 20% 이상이라고 답한 이는 6.2%였다. 이선에 기자 isa@



# 美 금리 오른다는데... 이주열의 선택은

〈한국은행 총재〉

## 한은 금통위, 모레 기준금리 결정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의 선택이 복잡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로 경기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을 확실시되는 탓에 선불리 금리 조정에 나서기도 어렵다. 이에 더해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이슈까지 맞물리며 올리기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6월 기준금리를 1.25%로 전격 인하한 후 5개월째 동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역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내적으로는 탄핵국면에 접어든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문제다. 9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탄핵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에 따른 여파가 우리 경제에 어떤 식으로 될지 한은으로서는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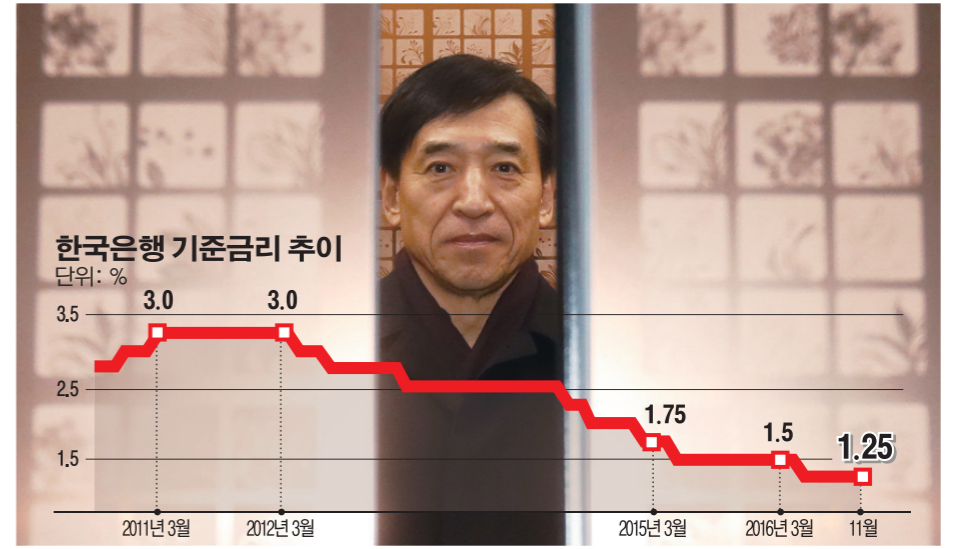
각종 대책에도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도 부담이다. 9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295조 원으로 10월 중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7조 원이 넘어선 점을 감안할 때 11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300조 원이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6월 1.25% 인하 후 5개월째 동결 탄핵국면에 대의 불확실성 상승 시중銀 주담대 금리도 5% 급등 "좀 더 지켜보자" 동결전망 우세

다. 6월 1.25% 인하 후 5개월째 동결 탄핵국면에 대의 불확실성 상승 시중銀 주담대 금리도 5% 급등 "좀 더 지켜보자" 동결전망 우세

다. 6월 1.25% 인하 후 5개월째 동결 탄핵국면에 대의 불확실성 상승 시중銀 주담대 금리도 5% 급등 "좀 더 지켜보자" 동결전망 우세

다. 6월 1.25% 인하 후 5개월째 동결 탄핵국면에 대의 불확실성 상승 시중銀 주담대 금리도 5% 급등 "좀 더 지켜보자" 동결전망 우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다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로 기준금리를 마냥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 당선 후 국내외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고 5%까지 급등했다. 한은마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제2금융권까지 내몰린 한계기구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한창인 해운·조선기업들의 자금 조달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조영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리를 조정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정책경로와 국내 정치 이슈도 안갯속이다. 게다가 가계부채도 한은에는 부담이다"고 전망했

다. 서양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경기 부진 우려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한은이 한계 취약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어느 때보다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동결'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분위기다. 다행인 점은 같은 날 미국의 FOMC 결과가 발표된 직후 회의가 열린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안을 미리 작성한 가운데 이주열 총재의 '시그널'에 주목하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 "경기 앞이 안 보인다" 성장절벽에 등 떠미는 정부

금융통화위원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연구기관들마저 내년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해외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은이 수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소비재물가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국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지 못하면 경기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국내 통화정책이 보다 완화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셈이다.

예산 지출규모 축소... 성장률도 둔화 "통화정책 완화, 경기부양해야" 주장 해외IB도 "한은 내년 금리인하" 전망

이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맞닿아 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400조 5000억 원)은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며 '슈퍼예산안'이란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속을 뜯어보면 내년 예산안은 추가 경정예를 포함한 올해 예산(398조 5000억 원)보다 0.5% 낮아진 데 불과해 실제로는 긴축 재정이라는 시장의 시각이다.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성장절벽을 강조하면서 경기부양의 책임을 한은에 떠넘긴 모양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산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보기 힘들뿐더러, 재정적으로 쓸 수 있는 지출 규모가 축소돼 실질적으로는 긴축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경기 전망 역시 우울하다는 점이다. 지난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4%포인트 낮춘 데 이어, KDI는 2.4%로 0.3%포인트 내렸다. 그동안 국제 연구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닥쳐올 위기는 더욱 예사롭지 않다.

이어 8일 기획재정부도 12월호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생산과 투자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회복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 IB마저 한은의 내년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나섰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해외 주요 IB들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지어 모건스탠리는 한은이 내년 3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민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이 조기에 집행되고, 추경이 하반기로 넘어간다고 볼 때 마땅한 경기 부양책이 없다"며 "한은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대한민국 농수산물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이제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창조농업, aT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변화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평화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 3.0 [정착] 3년차 30%의 혁신

# “글로벌 경쟁 심포는 없다” 환율·유가 대응 액션플랜 가동

재계, 탄핵정국發 ‘경영 빙하기’에도 내년 준비 착수

삼성전자, 부문별 글로벌 전략회의 개최... 이재용 부회장 직접 쟁길 듯  
현대차, 내주 해외법인장회의... 美 보호무역 따른 북미시장 대책 마련  
LG, 내년 1월 글로벌 CEO 전략회의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심층 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비상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한 재계가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회의를 필두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국정운영이 울스름되면서 환율·유가·경제성장률 등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 위기에 몰렸지만, 내년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은 내주 연말 행사 중 유일하게 글로벌 전략회의와 해외법인장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LG그룹 역시 내년 1월로 예정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전략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할 방침이다. 국내 시장의 경우,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경영환경이 예측조차 어려워지자 수비적인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은 이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경영진의 판단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기이사 선임 후 첫 글로벌 전략회의 = 삼성전자는 이날 19일부터 21일까지 수원·기흥·화성사업장 등에서 DS(부품), IM(IT·모바일), CE(소비자기전) 부문별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진행되는 글로벌 전략회의는 각 부문별로 사업본부의 핵심인원

과 해외 법인장 등이 모여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수습하고 내년 상반기 출시될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S8’의 출시 계획을 잡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글로벌 전략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된 후 처음 열리는 글로벌 전략회의인 만큼 이 부회장이 참석해 직접 현안을 챙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장단 인사와 후속 임원인사, 조직개편이 내년 2월께로 늦춰지면서 그룹 차원의 굵직한 연말 행사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선 매년 12월 초 열렸던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시상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더불어 12월 말 개최하는 사장단 워크숍도 사실상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몽구 회장, 법인장회의의 주재... 고강도 위기 대응책 주문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청문회 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해외법인장회의는 이르면 다음주 개최된다. 이 회의는 현대·기아차 전 세계 60여 명 법인장들이 참석해 한 해 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도 사업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로 정 회장이 직접 주재한다.

정 회장은 위기를 돌파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대응 전략 중 하나는 북미시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내 생산을 중시하는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내년 본격적으로 멕시코 공장을 풀가동하는 기아차로서는 관세 폭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경영계획 수립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한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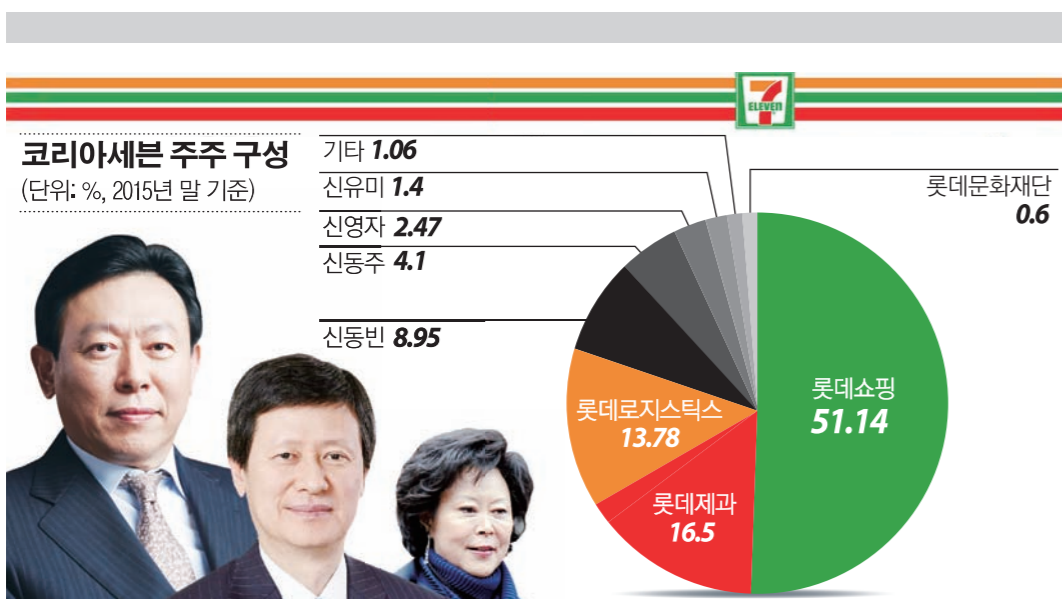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 페스케리아시에 건설된 기아자동차 멕시코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정몽구(왼쪽 두 번째)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내빈들이 K3(현지명 포르테)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아자동차

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게 없어 보여, 가시방석이 아닐 수 없다”면서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워낙 커 경영 여건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LG그룹은 내년 1월 셋째주 이전 LG인화

원에서 글로벌 CEO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LG그룹 최고경영진 40여 명이 모여 이틀에 걸쳐 글로벌 경제 환경과 LG 브랜드의 시장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안철우·김희진 기자 acw@



## ‘코리아세븐’부터 프리 IPO... 기업공개 ‘두 토끼’ 잡는 롯데

롯데그룹이 기업공개하겠다고 밝힌 계열사 중 코리아세븐의 상장 전 지분매각(프리 IPO)이 우선 추진되는 것은 편의점 사업의 성장 성과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리아세븐의 에비타(EBITDA·상장 전 영업이익)는 2014년 1038억 원에서 2015년 1119억 원으로 성장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편의점은 2016년 매출 전년 대비 1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편의점의 점포 수 및 점포당 매출도 월 평균 각

알짜 편의점 사업부터 시장 내놓으며  
상장약속 실천과 현금 확보 ‘일석이조’  
IPO시장 최대어 ‘호텔롯데’ 관심집중  
내년 상반기 실적 확인 후 추진 전망

각 12.7%, 6.5% 증가하며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 코리아세븐의 올해 에비타도 전년 수준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이처럼 롯데그룹이 사업환경이 밝은 계열사부터 프리 IPO를 추진해 기존에 밝힌 상장 약속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코리아세븐의 프리 IPO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매각 지분은 전략적 투자자(FI)의 자금 모집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롯데쇼핑(51.14%)이다. 이어 롯데제과(16.50%), 롯데로지스틱스(13.78%), 신동빈 회장

(8.95%), 신동주 전 롯데호텔그룹 부회장(4.10%) 등이 보유하고 있다. 다만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롯데그룹이 코리아세븐의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의 지분이 매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롯데그룹이 코리아세븐의 상장 전 지분매각(프리 IPO)을 추진하면서 다른 계열사의 상장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프리 IPO가 상장 전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그룹의 계열사 상장 전략이 2017년 하반기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것.

롯데그룹의 기업공개 1순위인 호텔롯데는 최근에 상장과 관련, 진행되는 사안이 없다. 호텔롯데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 메릴린치,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구체적인 일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상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변세점 사업의 수익성 악화, 중국 정부의 단체 저가 여행 규제를 고려하면 호텔업 사업 환경은 밝지만은 않다. 이 때문에 2017년 상반기 실적을 확인한 뒤에 호텔롯데의 상장이 추진될 것이라 관측이 힘을 얻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는 상장을 위해 재무를 점검하는 단계”라며 “코리아세븐도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장을 위해 여러 외부 환경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고 덧붙였

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 우리 어머니를 국민건강보험이 지켜주었습니다.

**의료비 감감 혜택을 받은 수원시 권선구 서동숙님 사연**

빙판길에 다쳐 입원하시고 뇌출혈 수술을 받게 된 어머니... 돌아가실까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병원비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데 400만원이 넘는 병원비 중 29만원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고 걱정은 덜어준 국민건강보험! 너무나 고맙습니다.

**4대 중증질환**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의료비가 확 줄었습니다.**

1조 119억원

2012년

↓

환자 부담 61%감소

3,972억원

2015년

# 외치도 내치도...황 권한대행 '광폭행보'

이틀연속 첫 청와대 업무보고  
경제·교육·고용 분야 현안 청취  
국정 운영체계 안전 선결과제로  
AI확산 방지·취약층 지원 주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순실 게이트로 표류하고 있는 민생 쟁기 행보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외치'뿐만 아니라 '내치'까지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식 업무 이틀째인 13일에는 청와대로부터 정책 분야 업무보고를 받고 권한대행으로서 첫 국무회의도 주재한다.

청와대와 총리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 수석실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석훈 경제수석, 현대일 미래전략수석, 김용승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의

정책 분야 수석들이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황 권한대행에게 담당 업무와 주요 정책현안들을 보고할 예정이다.

12일에는 허원제 정부·조대환 민

정·배성례 홍보·정진철 인사수석과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약 30분씩 황 권한대행에게 현안을 브리핑했다. 황 권한대행은 배서자 없이 단독으로 청와대 참모들을 만나 보고를 받았으며, 기본 업무 현황을 위주로 통상적인 수준의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업무 조율을 통해 국정운영체계를 권한대행 중심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감안해 가급적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 참모들의 전언이다.

황 권한대행은 전날 각종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국정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소화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강력 조치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보안대책 등을 지시하면서 민생 살피기에 나섰다. 특히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는 "그간 호흡을 맞춰온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 경제팀이 책임감을 갖고 각종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며 유일호 경제팀을 사실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현재 유 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이 현연일체가 돼 적극 대응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으로도 황 권한대행은 외교·안보는 물론, 민생 현안과 인사까지 광폭 행보를 보이며 대통령의 빈 자리를 메워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14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국 수습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민정기자 puri21@

## 靑 수석실별 업무보고



배성례 홍보수석(오른쪽)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탄핵에 막힌 공공기관장 인사...“조만간 해결”

황 권한대행, 靑과 인사권 조율  
마사회 회장 등 곧 결론날 듯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만간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청와대와 조율을 끝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24곳이다. 기관장 인사가 지연된 공공기관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임원 인사 등도 중지됐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연돼 업무 공백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내부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장 인사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한국마사회장 자리를 두고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과 박양태 현 마사회

경마본부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 제청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신임 마사회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관리·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부는 현재 공공기관장 인사 정체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연성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장 임기가 지났는데 인사를 안 한 곳은 많지 않다”며 “일부 공공기관은 마땅한 후보가 없기도 하고 이 정도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단일한 현실 인식이란 지적이다.

곽도훈 기자 sogood@

## “주요사업 준비절차만전 내년초 즉시 예산 집행”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 연말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준비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한 뒤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연말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준비 절차를 마무리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보조사업은 국회 확정예산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정 통지’해 지자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행자부와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기적소(適期適所)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재정 집행 목표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월·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올해 재정 집행 목표 달성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 ‘고액 벌금 미납자’ 압수수색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저공해 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황 권한대행이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맡은 이후 처음 주재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500만 원이 넘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 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각의는 또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과 회수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

권한대행으로 첫 국무회의 주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의결

안도 의결했다. 연간 4만 톤이 넘는 어망이나 밧줄 등 어구가 유실되면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어구를 설치할 때 어구실명제가 실시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 어구의 과다 사용과 불법 어구 사용을 막도록 하는 어구관리 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62건, 대통령령 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 국조특위, 19일 5차 청문회 증인에 국정원 국장 등 ‘우병우 라인’ 포함

여야간사, 24명 참고인 채택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로 예정된 5차 청문회에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등 증인 24명과 참고인을 잠정 채택했다. 기업인도 다수 포함됐다.

특위 여야 간사는 12일 회동에서 추국장을 비롯해 황창규 KT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이기우 SKI 대표이사, 김응규 전 포스코 부사장,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오영호 전 코트라 사장, 이동수 전 KT 전무, 박성진 삼성전자 사장(삼합회장), 정만우 전 포스코 ER 팀장 등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4명도 다시 채택했다.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최순실 씨와 안니 순득 씨 딸 정유라 씨, 안종범·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우 전 수석의 정모인 김장

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유진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이다.

김환영 전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은 참고인으로 부른다.

여야는 또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의 증인채택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은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잠적한 우 전 수석 공개수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자비로 현상금 200만 원을 먼저 내걸고, 현상금 모금 계좌 공개를 통해 금액을 불리는 중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정래 전 의원, 심지어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까지 돈을 보냈고, 일반인들까지 동참하면서 현상금은 2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부산 등 곳곳에서 우 전 수석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적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hlee@

## 긴급수출점검회의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수출점검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주 장관은 “수출플러스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 ‘방송+통신’ 동등결합, 실효성은 ‘글썩...’

케이블TV·이동통신 결합상품  
미래부, ‘판매 가이드라인’ 발표  
先추진後협상...법적 효력 없어  
“체결만 앞세워” 우려 목소리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 동등 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선(先)협상 후(後)타결을 중요시한다. 법적 효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래부는 연내 발표 예정인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13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유료방송 발전 확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유료방송발전방안의 한 축인 케이블TV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미래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선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결합 판매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점에 재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협상 먼저 추진하고 세부적인 협상액 등은 나중에 정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 사이에 오로지 ‘협상 체결’만을 앞세운

가이드라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구체적인 재협상 시점과 효과 검증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의미다. 나아가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지켜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먼저 협상체결이 되더라도 가협상 성격이 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협상 시점과 조건 등을 못박지 않으면 가협상조차 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계 간 협상에 주무부처가 법적인 규제를 내놓기보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이 자사 IPTV 방송을 신청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통신사업이 없는 케이블TV 사업자에게는 당연히 불리한 구조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를 극복하고자 자사 방송과 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 서비스’를 주장해온 상태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해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제도 운용 내용과 시행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 대통령 탄핵심판 장기화하나

### 현재 "9가지 사유 모두 심리가 원칙" 양 당사자 주장 함께 판단 '변론주의' 개별 사유 철회 가능성엔 이견 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2일 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재는 국회에서 나열한 탄핵소추 사유를 빠짐없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이 참석한 전체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고 향후 절차와 기일 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는 평의 후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에는 '작권주의'가 아닌 '변론주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작권주의는 심판 범위를 재판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반면, 변론주의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 원래 헌재는 작권으로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30조 2항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변론주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헌법재판부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파면에 충분한 정도가 확인되면 바로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일부 사유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

한 정도가 심각해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유에 대한 심리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계에서 내년 1월 혹은 3월 선고가 예상된다. 관측을 내놓은 것도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헌재가 국회에서 나열한 헌법위반 사유 5건과 법률위반 사유 4건 등 총 9가지 사유를 모두 심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심리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박 대통령 측도 관련된 주장을 폭넓게 펼치거나,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시간을 끄는 게 가능해진다.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탄핵소추" 개별 사유를 철회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하고,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가 임의로 탄핵사유 일부를 뺄 수는 없지만, 국회가 스스로 철회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이 중대하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도 재판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 등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또 헌법연구관 20명 규모의 테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재판관들의 이론 구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좌영길 기자 iyg97@

## AI 확산... 한산한 축산 매대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살처분이 1000만 마리를 넘으면서 역대 최단 기간 내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시장 축산식품 점포 내 생매 매대가 텅텅 비어 있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AI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 일체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근 기자 foto@

# 오늘부터 울산서 첫 '수소 택시' 달린다

### 현대차 '투싼ix'...요금은 일반택시와 같아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수소 택시가 운행된다. 환경부는 울산시,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13일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수소연료전지 택시 시범사업 발대식을 갖고, 국내 첫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 김기현 울산시장, 윤시철 울산시의회 의장, 윤갑환 현대자동차 사장을 비롯해 울산시 택사업체 대표 등이 참석, 수소택시를 타고 울산시청 인근 2.8km 코스를 시승할 계획이다. 행사 이후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시승이 이어진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수소 택시 차종은 2013년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된 현대자동차의 '투싼ix'다.

수소차인 '투싼ix'은 전자와 수소이온으로 분리된 수소(연료)가 산소와 화학 반응을 물과 전기로 전환돼 전기모터를 구동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친환경 경차다.

수소차는 최소 몇 십분 이상 충전을 해야 하는 일반 전기차에 비해 수소가스의 완충 시간이 3~5분으로 매우 짧다. 또 완충 후 주행거리가 전기차의 2~3배인 415km에 이른다. 수소 택시 이용요금은 울산지역 내 일반택시와 같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 택시 10대를 우선 보급하고 내년 상반기에 5대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엔 수소차 130대, 수소충전소 10기를 울산·광주·창원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박은평 기자 pepe@

# 대법, 론스타 '스타타워 먹튀' 모래 최종 결론

### 유령회사 통해 1000억대 법인세 회피 혐의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며 25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최종 결론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론스타펀드 III(US)'와 '론스타펀드III(버뮤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이날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1000억 원대 법인세 과세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해

외펀드가 유령회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1, 2심 모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지만, 세부적인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론스타가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세무당국이 법인세에 포함된 가산세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1040억 원의 세금 중 392억 원의 세금을 취소했다. 해외법인을 통한 건물 거래가 정당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 '액티브 시니어' 투자·유행 이끈다

(자신을 능력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50~60대)

### 시니어 전문 월간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설문조사

### 월소득 593만원... 응답자 40% "나를 위한 투자 아깝지 않다" "유행을 빨리 받아들인다" 답변 10년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자신을 능력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50~60대 '액티브 시니어'가 최신 유행에 발 빠르게 적응하며, 투자나 자금운용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을 위한 지출 역시 아끼지 않고 있다.

13일 5070세대 시니어 전문 월간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이하 브라보)가 창간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2016 대한민국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조사에 따르면 50~60대 3299명 중 30.5%가 "나를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다"는 질문에 긍정 답변을 한 반면, '액티브 시니어'는 40.2%가 '그렇다'고 답했다.

브라보는 이번 조사에서 본인 소득이 있고,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한 응답자를 '액티브 시니어'로 분류했다. 응답자 중 '액티브 시니어'는 707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93만 원이다. '액티브 시니어' 중 연평균 가구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층 403명은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로 별도 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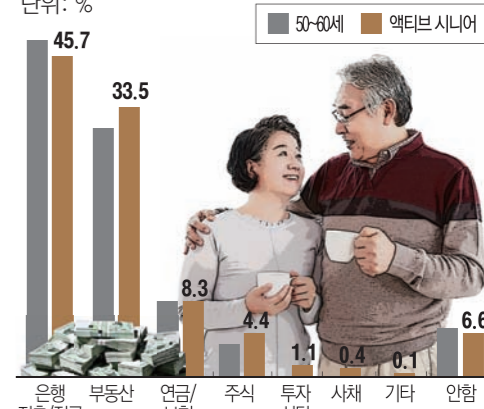
'액티브 시니어'는 '여가생활에 많은 돈을 쓰는가?'라는 질문에 36.8%가 그렇다고 응답

했다. 전체 50~60대의 긍정 답변(22.2%)보다 많은 수치다. '비싸더라도 유기농·친환경 식품을 시켜먹는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22.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액티브 시니어'는 자산운용에도 만족했다. 전체 응답자 중 16%만이 '돈을 운용하는 데 뛰어나다'라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반면, '액티브 시니어'는 27.4%가 자산운용에 대해 자신했다. '신문에서 투자 관련 기사를 꼼꼼히 읽는다'라는 항목에서도 전체(19.0%)에 비해 '액티브 시니어'(30.3%)의 응답률이 높았다. 실제 '액티브 시니어'의 평균 투자 금액도 3400만 원으로 50~60대 전체(3100만 원)보다 높았다.

'액티브 시니어'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투자할 곳'으로 은행(45.7%)과 부동산(33.5%)을 꼽았고, 주식투자를 꼽은 응답자는 4.4%에 불과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자금 마련 방식에서도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부동산(53.1%)을 가장 선호했다. 매체 구독에서도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 42.8%가 정기적으로 월간지를 읽었고, 이는

### 여유자금이 생기면 투자할 곳



여가와 즐거움을 위한 목적(61.5%)이 가장 많았다.

트렌드에 민감한 성향은 10년 전 결과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액티브 시니어' 중 유행을 빨리 받아들인다고 응답한 비율은 28.8%로, 2006년(12.8%)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강혁 이투데이PNC 대표는 "피상적으로만 유추했던 액티브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며 "시니어 전문 월간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액티브 시니어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회가 독점적인 보험상품에 대해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입니다. (2016.8.24 ~ 2016.11.23)

## Ci보험의 새로운 기준 교보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무)교보프리미어Ci보험 | (무)교보프리미어여성Ci보험  
보험금보증비용부과형 | 보험금보증비용부과형

늘 사람을 생각하는 교보생명엔 사람을 지키는 보장을 알기에 중대질병은 물론 더 커진 보장으로 당신의 인생을 케어합니다 모두가 찾던 Ci보험, 교보생명이 만들어갑니다

별하네 우리하네 **천수**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교보생명에게 가입한 구하의 모든 예금저축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기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저축성 상품이 아닌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계약자적립금이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확인필 1-1607-62 상품지원팀 (2016.7.25)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2654호(2016.9.9)

**KYOBO**  
교보생명

# 탄핵 후폭풍...기업은행 수장 공백 위기

# 은행, 마음대로 가산금리 못올린다

권선주 행장 2주 후 임기 만료 대통령 직무 정지로 임명 차질 박춘홍 전무 대행체제 유력 박 전무도 내년 1월 임기 끝나 후순위 이사 없어 차선택 찾아야



권선주 행장 박춘홍 전무이사

IBK기업은행이 차기 은행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 속 은행장 인선이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오는 27일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 인선 작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신임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청와대가 임명한다. 2주 안에 차기 행장 후보 검증과 임명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기간 내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기업은행장 임명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

이 인사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한 만큼 기업은행의 인사 문제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금융위로부터 후임 행장 인선 작업에 대한 계획, 일정, 대책 등 어떠한 얘기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권 행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차기 행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규정 따라 박춘홍 전무이사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기업은행 측은 아직 권 행장의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대행 체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문제는 박 전무의 임기도 내년 1월 20

일에 끝나는 점이다. 이때까지도 차기 행장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은행으로는 차선택을 찾아야 한다. 규정상 후순위 이사가 대행 체제를 이어가야 하지만 박 전무가 유일하다. 박 전무 임기가 만료될 경우 법리적 해석, 금융위의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후순위 부행장이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행장 공백이 길어져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의사결정 구조상 행장 자리가 비어도 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미 내년 운영 계획도 모두 짜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대출금리 모범규준 기준 모호 은행마다 금리 운용 차이 커 금감원, 산정체계 정비 나서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모범 규준이 손질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해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정한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차이가 크다고 보고, 산정기준을 더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은 2012년 금감원과 은행들이 함께 만든 것으로 당시에도 오라가라 바뀌는 가산금리가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제정됐다. 지금까지 한 차례 개정이 있었다. 이때 은행은 대출자 요구가 있을 때 가산금리를 바꾼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가산금리를 높여 이자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해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무권이 거의 없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므로 상대적으로 재량이 크다. 특히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현재 은행은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엔 은행별로 제각각인 대출금리 공식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홈페이지에서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를 공시하도록 금융 소비자가 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자 폭주에 서버 다운 은행에서 잠자던 돈 26억 나흘새 주인에게 돌아가

50만명 본인 계좌 조회 접속자 몰려 3-4시간 대기 계좌 해지 시간 오래 걸려 서버 분산 구축 소송 없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 잔고가 30만 원 이하인 계좌의 잔액을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옮길 수 있다. 쓰지 않는 계좌는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오픈 첫날인 지난 9일 사이트 방문자는 20만 명을 넘었고, 12억1730만 원의 ‘잠자던 돈’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가 불가능한 주말과 휴일에도 사이트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 11일 오후 누적 기준 32만 명이 다녀갔다. 서비스 시행 나흘째인 12일 오후 3시 기준 50만 명이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비활동성 계좌 42만 개(26억 원)를 해지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아카운트인포) 사이트 접속이 폭주해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를 예상했던 금융당국의 사전 대비가 무색하게 됐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이날 12일 오후 들어 홈페이지 접속자가 몰리면서 3시간 대기시간이 5만6000여 명으로 예상 대기시간이 3-4시간에 달했다. 특히 이날 오후 한때 예상 대기시간이 5시간까지 치솟기도 했다. 잔고 이전-해지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날 해당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 잔고가 30만 원 이하인 계좌의 잔액을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옮길 수 있다. 쓰지 않는 계좌는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오픈 첫날인 지난 9일 사이트 방문자는 20만 명을 넘었고, 12억1730만 원의 ‘잠자던 돈’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가 불가능한 주말과 휴일에도 사이트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 11일 오후 누적 기준 32만 명이 다녀갔다. 서비스 시행 나흘째인 12일 오후 3시 기준 50만 명이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비활동성 계좌 42만 개(26억 원)를 해지했다.

## “월세도 카드로 내세요”



12일 서울 강남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열린 주택 임대료 카드 납부 서비스 MOU 체결식에서 변창홍 SH공사 사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유구현 우리카드 사장(왼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번 제휴로 내년 3월 31일까지 주택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첫 납부 시 신한카드사는 1만 원, 체크카드는 5000원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사진제공 신한카드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특성상 초기에 이용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서버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예산을 들여 대비했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 사이 잔고 이전-해지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하나의 전산망에 연결된

16개 은행 중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비정상적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빨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제 계좌 2억3000만 개 가운데 잔액 기준 14조4000억 원 규모의 45%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장효진 기자 js62@

# 대형 생보 3사, 올 실적 먹구름

월남환산소득보험료 목표 80% 소비 위축에 연말 특수 사라져 해지환급금도 작년보다 1조 늘어

사들이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막판 스프트를 올리는 시기도. 그러나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영입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월 기준 생보업계 해지환급금은 14조6419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13조7144억 원)과 비교하면 1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올해 실적이 부진할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지난해 월남환산소득보험료 목표달성률이 각각 80%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에 90~95%의 달성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부진한 수치다. 월남환산소득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챙기는 수익 지표 중 하나다.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을 팔았을 때 보험료 등을 회사 내 평가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상품별 가치치 등 환산 방식은 보험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목표달성률 정도를 보고 해당 회사의 영업 실적을 가늠할 수 있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연말은 보통 보험설계

여기에 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험사 설계사 채널로 유입되는 실적이 감소한 것도 대형 보험사의 영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과거엔 연말이 ‘지나가는 개도 청약서를 물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영업이 활발한 시기였다”면서 “보험업계는 물론 국내 경제 상황이 어두워지면서 영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치, 경제가 안 좋은 데다 저축성보험 비교세 축소 등 규제 강화 얘기가 나돌아 보험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희희 기자 jhsseo@

www.duzon.com

##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Cloud Center

자동분개

자동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 법인세 MRI 검사  
• 부가세 MRI 검사  
• 산업동기 알림서비스  
• 4대보험 신고 알림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정보처리)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하려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응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금융그룹

2009

2010

2011

2012

2016 국가고객만족도(NCSI) 10번째 1위 달성!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사랑  
한 분 한 분의 든든한 희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08

2013

2007

2015

2006

2016



# ‘유가 단비’에 숨통 트인 조선업계

OPEC 감산 합의 유가 안정세  
5000억 규모 쿠웨이트 유조선 등  
해양플랜트 발주 재개 움직임  
인도 지연 문제 해결 기대감도

## 조선 빅3 해양플랜트 수주 잔량

회사명	시추설비	FPSO 포함한 생산설비	수주잔량 총계
현대중공업	07기	137기	137기
대우조선해양	97기	47기	137기
삼성중공업	107기	97기	197기



주 물량은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VLCC) △5만 톤급 소형 유조선(MR탱커) △8만2000㎥ 초대형 LPG운반선(VLGC) 등이다. 돈으로 따지면 약 5000억 원에 달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이 보유한 일부 유전의 손익분기점(BEP)은 배럴당 50달러 수준”이라며

“OPEC 감산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50달러에 안착할 것이라 전망이 쏟아지자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들이 신규 입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양플랜트 입찰이 본격적으로 발주시장에 등장하려면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동상 해양플랜트는 기간에서 발주까지 2~3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산유국 경기가 살아나고,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한다. 자연스레 선박 발주가 늘어나고, 해양플랜트 분야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그동안 발주처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차일피일 미뤄온 해양플랜트 인도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 미국 셰브론과 계약한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1기 계약 기간을 무기

한 연기했다. 당초 계약 종료일은 지난달 30일이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달 미국 옛우드오셔닉과 계약한 드릴십 2척 인도 기간을 연기했다. 세 번째 인도 지연으로, 최종 계약 당시에는 지난해가 인도 시점이었다. 삼성중공업 역시 최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 인도 시점을 2018년 1월에서 2020년 7월로 변경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해양플랜트 발주가 재개되면 플랜트 건조 경험이 풍부한 한국 조선사에 주문이 물리게 될 것”이라며 “다만 최근 구조조정 관점에서 해양 분야 인력이 대거 정리되고 있어 2~3년 뒤 본격적으로 발주될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중삼원계 배터리 보조금 금지령 해제 LG화학·삼성SDI ‘긍정적 영향’ 기대

내년 1월부터 전기버스도 재허용

중국이 삼원계 리튬(NCM) 배터리에 대한 전기버스 보조금 금지령을 내년 1월부터 해제한다. LG화학과 삼성SDI에 수혜가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10일 베이징에서 신에너지자동차 안전감독관리업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버스 유형에 삼원계 배터리 버스를 포함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 폭발사고가 일어나면서, 올해 1월부터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현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LG화학과 삼성SDI는 문제 해결을 위해 테스 크포스(TF)를 꾸리며 대응했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3월 중국을 방문해 공업정보화부 부장에게 제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보조금 금지령 해제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화학과 삼성SD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버스의 삼원계 배터리 보조금은 인공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 기준을 만족하고, 제3기관에 안전 증명을 받으면 배터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버스는 일반 승용차보다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수요처 중 하나”라며 “전기버스 삼원계 배터리 보조금 금지령 해제는 국내 업체들에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기관 평가는 조건에 따라 안전 증명을 인정받기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삼원계 배터리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기술 조건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 지급을 희망하는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버스 안전기술조건’에 만족하는 제3기관의 증명서를 내년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제시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기간 내 증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홀로그램·싱크뷰... 평창올림픽 ‘5G 기술’로 더 생생하게

2018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마치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기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KT가 안정된 5G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3차원 입체영상 홀로그램, 싱크뷰(인칭 영상중계) 등 실시간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KT는 13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평창 5G 시범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현재까지 준비사항을 발표했다. KT는 이날 5G 필드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고, 5G 기반의 실시간 미디어 서비스를 소개했다.

KT는 지난 10월부터 5G 장비와 규격을 검증하고자 유동인구가 많고 고층빌

## KT, 실시간 미디어 서비스 공개 초고화질 실시간 전송 ‘싱크뷰’ 서울-강릉 연결 ‘홀로그램’ 시연

딩이 밀집한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5G 테스트 네트워크’ 구축을 마쳤다. 이를 기반으로 이날 오전 필드 테스트를 시행해 빌딩 안 환경에서 2Gbps 이상의 무선 다운로드 속도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KT는 이날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미디어 서비스를 공개했다.

그동안 봅슬레이 경기는 속도가 빠르고 위험해 경기장 바깥에서 촬영한 영상밖에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싱크뷰를 활용하면 선수 시점에서 시속 120~150km 봅슬레이의 스릴 넘치는 슬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다.

싱크뷰 서비스는 초소형카메라에 이동통신 모듈을 탑재, 5G 기반 기술인 액티브 안테나를 통해 초고화질 영상을 실시간 전송한다. 서로 다른 영상을 동기화시키는 기술을 통해 선수 시점 영상과 중계화면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5G를 활용한 타임슬라이스 기술을 통해서도 영상 가운데 선수별로 포커싱이 가능하다. 아이스하키와 같이 여러

선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기에서 개별 선수의 움직임을 더욱 세밀하게 살필 수 있다. 360도 VR(가상현실)은 경기장뿐 아니라 선수 대기실, 인터뷰석까지 감상할 수 영역을 늘린 게 특징이다.

KT는 또 홀로그램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이번에는 각각의 장소에 있는 사람을 하나의 홀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다자간 홀로그램(서울-평창-강릉)’을 시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강릉에 있는 피겨스케이팅 페어팀의 김수연 선수와 평창에 있는 피겨스케이팅 페어팀의 김형태 선수가 광화문 홀로그램 부스에 한 화면으로 등장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쉐보레 ‘신형 크루즈’ 내년 1월 출격

9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

한국지엠 쉐보레의 세해 첫 신차가 준중형 세단 ‘신형 크루즈’로 결정됐다.

12일 한국지엠은 내년 1월 국내에 출시하는 신형 크루즈가 엔진부터 디자인까지 바뀐 풀체인지(완전 변경) 모델이라고 밝혔다. 크루즈의 풀체인지 모델은 2008년 지엠대우 시절 크루즈의 전신인 ‘라세티 프리미어’ 이후 9년 만이다. 신형 크루즈는 내년 1월 말 양산을 목표로 최근 군산공장에서 생산에 돌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부터 스파코 트림 트렉스 트리아베오 등 글로벌 모델을 차세대 모델로 변경해 출시했다. 여기에 신형 크루즈가 투입되면 국내에서 차세대 라인업을 모두 완성하게 된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형 크루즈는 완전 변경 모델인 데다, 쉐보레의 주력 모델인 만큼 한국지엠이 거는 기대도 크다. 크루즈는 110개국 이상에서 4000만 대 누적 판매를 기록한 쉐보레의 베스트셀링 카드. 북미 시장에서는 올해 1월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3월부터 세단, 가솔린부터는 해치백 모



쉐보레 ‘신형 크루즈’ 사진제공 한국지엠

델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신형 크루즈가 내년엔 투입되면 침체됐던 준중형차 시장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미 시장에서 출시 이후 월 2만 대 수준의 판매를 기록, 같은 차급의 ‘투톤인 혼다 시빅’과 도요타 ‘코롤라’ 사이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르노삼성 ‘SM3’의 후속차인 준중형 해치백 ‘메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준중형차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형 크루즈가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내 베스트셀링 카 중 하나인 현대차 아반떼를 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 삼성전자 주도 HDR 기술 유럽 UHD 방송 표준 채택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HDR(High Dynamic Range)’ 기술이 유럽 UHD 방송 표준으로 채택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 디지털 영상방송(DVB)자문위원회는 2014년 UHD 1단계 방송 규격 발표에 이어, 최근 오픈 플랫폼 HDR 기술인 ‘HDR10’과 ‘HLG’를 표준으로 한 2단계 방송 규격을 발표했다.

DVB는 유럽 내 방송 송수신을 위한 기술 표준을 정하는 국제 기구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방송 표준으로 DVB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2단계 규격에 새로 포함된 기술로는 HDR 표준으로 승인된 ‘HDR10’과 ‘HLG’가 대표적이며, UHD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업계에 공개됐다.

HDR는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표현해, 영상의 입체감을 높이고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최대한 유사한 화면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HDR10은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UHD 얼라이언스가 채택한 기술이다. 섬세한 화질 표현이 가능해 다수의 할리우드 영화사와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사용하고 있다.

HLG는 화면을 세밀하게 재현하기 위한 메타데이터가 별도로 필요 없어 촬영한 영상의 후작업이 불가능한 스포츠 경기, 뉴스 등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데 유리하다. 사전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와 같은 섬세한 표현은 어렵지만 생방송에 최적화돼 있는 HDR 기술로 꼽힌다. 영국 BBC가 처음 제안한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2014년부터 기술 협력을 진행한 바 있다.

송영록 기자 syr@



## 파리지앵 사로잡은 ‘LG 시그니처’

LG전자가 내년 초 ‘LG 시그니처’의 프랑스 출시를 앞두고 파리의 프랑스 국립산업기술센터 쇼룸에서 ‘LG 시그니처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는 내년 초 ‘LG 시그니처’ 신제품을 프랑스 시장에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현지 관람객들이 ‘LG 시그니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 현대오일뱅크, 美 KBR와 손잡고 고도화 설비 업그레이드

2018년까지 4690억원 투입  
‘잔사유 처리’ SDA공정 추가

현대오일뱅크가 미국 KBR(Kellogg Brown&Root)와 손잡고 고도화 설비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현대오일뱅크는 올해 1310억 원을 시작으로 총 469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8년까지 고도화 설비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고도화 처리 전 단계에 하루 8만 배럴의 잔사유를 처리할 수 있는 SDA(Solvent De-Asphalting) 공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오일뱅크

는 미국 KBR과 협력 계약을 맺었다. KBR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 기술로 세계 80여 개국, 연간 7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플랜트를 수출하는 에너지·석유화학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이다. KBR은 현대오일뱅크에 SDA 공정 설계·제작과 관련한 라이선스 및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잔사유에 포함된 금속, 황, 질소 등의 불순물은 고도화 공정에 투입될 경우 경질유로 전환되지 않고 촉매에 달라 붙어 촉매 수명을 단축시키고 경질유 수율을 감소시킨다”면서 “SDA공정은 잔사유에서 불순물을 제거, 촉매 수명을 연장하고 고도화 설비에 투입할 수 있는 피드(Feed)를 늘

리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는 현재 고도화율을 △현대오일뱅크 39.1% △GS칼텍스 34.9% △에스오일 25.5% △SK에너지 23.4%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투자를 통해 현재 국내 1위 수준의 고도화율(39.1%)을 45~46%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올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5248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 2008년 상반기(4976억 원)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갱신했다. 단, 3분기에는 정제마진 하락 여파로 영업이익 1239억 원을 기록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현대차 카파 1.4 가솔린 터보 ‘세계 10대 엔진’ 선정

美 워즈오토 선정...3년 연속 수상

현대자동차의 카파 1.4 가솔린 터보 엔진(사진)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미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 워즈오토(Wardsauto)가 선정한 ‘2017 10대 엔진’에 카파 1.4 가솔린 터보엔진이 이름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으로 타우 엔진이 10대 엔진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12년 감마 엔진, 2014년 투싼 수소전기차 파워트레인, 2015년 소나타 PHEV 파워트레인이 10대 엔진에 뽑히며, 총 7번의 수상 영예를 안았다.

카파 1.4 가솔린 터보엔진은 △직접연료분사 △싱글스크롤 터보차저(EWGA) △OCV 일체형 CVVT △배기 일체형 헤드 △고에너지 점화 코일 등을 적용, 성능과 효율성을 높였다. 현대



차의 작은 크기의 엔진을 선호하는 현 추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터보엔

진 차량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워즈오토는 카파 1.4 가솔린 터보엔진 선정 이유에 대해 “정속성과 뛰어난 성능, 경제성과 연료 효율성 등 우리의 평가 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엔진”이라고 밝혔다. 이 엔진은 미국 ‘앨란트라 에코’, 중국형 ‘아반떼(링동)’에 처음 탑재됐으며, 국내에서는 신형 ‘i30’에 적용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3년 연속 수상하며 독보적인 엔진기술력을 다시 인정받았다”며 “현대차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소형부터 대형까지 아우르는 전 차급에서 강력한 엔진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 한류스타 테마파크, IT 융·복합 체험관...“내가 바로 적장자”

## ② 5사5색 특허전략은

서울 시내면세점 새 사업자는 누가 될까.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 등 5개 대기업은 15~17일 면세점 특허심사를 앞두고 각자의 강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면세점 특허 획득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 롯데, HDC신라, 신세계, SK 등 5개 기업이 내세운 강점과 특허 획득 전략은 무엇일까.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 참여 대기업**

- “교통체증·주차난 없는 강북에 입지 호텔·스파 등 복합리조트로 시너지”**  
문중훈 SK네트웍스 사장
- “싼거 만족시킬 첨단시설 구축 면세점 30년 운영 노하우 보유”**  
이길한 HDC신라 공동대표
- “외국인 관광객 선호 1위 브랜드 파워 재승인 실패로 실직한 1800명 재고용”**  
장선옥 롯데면세점 대표
- “기존 센트럴시티 인프라 바탕으로 고객 기억에 남는 마인드마크”**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
- “5곳 중 유일한 신규사업자 초대형 럭셔리 면세점 표방”**  
이동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현대에는 유일한 신규 사업자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된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야 면세점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에 1만4005㎡ 규모의 면세점을 조성할 현대는 초대형 럭셔리 면세점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현대는 강남지역 관광 발전에 300억 원, 지역문화 육성과 소외계층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한류스타를 테마로 한 1000㎡ 규모의 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동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은 “국내 면세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우리처럼 역량을 갖춘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글로벌 랜드마크 수준의 ‘초대형 럭셔리 면세점’으로 꾸며 국내 면세점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잠실 월드타워점 재탈환에 나선 롯데는 부동의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로서 가진 독보적 운영 노하우와 마케팅 능력, 지난해 특허 재승인 실패로 줄지어 일자리를 잃게 된 1300여 명 종업원의 재고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강

남권 관광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지원 등에 2조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롯데는 또 월드타워점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123층 높이의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들어서면 관광객 유치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특허를 획득하면 월드타워점을 국내 최대 규모인 1만7334㎡로 확장할 계획도 밝혔다.

장선옥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월드타워면세점을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과 문화의 메카로 만들어 한국과 한국 문화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상생의 면세점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의 면세점 운영 노하우와 현대산업개발의 개발 능력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와 삼성의 IT 기술을 대거 동원한 IT 융복합 체험형 면세점으로 젊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HDC신라면세점은 서울 삼성동에 약 1만3000㎡ 규모의 면세점을 꾸밀 계획이다.

HDC신라 관계자는 “중국 산커를 비롯한 외국 관광객들이 쇼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춘 ‘밀레니엄 면세점’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는 5개 기업 신청 면세점 중 유일하게 강북에 있는 점과 워커히호텔 입지를 앞

세워 쾌적한 교통 환경을 강점으로 전면에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SK는 승용차 주차장 460대 수용공간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주차공간을 대폭 확장하고 강변역, 광나루역을 지나는 셔틀버스 확대 등 편리한 면세점 쇼핑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스파 등을 내세워 서울 유일 1만4313㎡ 규모의 복합 리조트 면세점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또한 최근 50억 원을 투자해 업무처리 속도, 마케팅 활용 측면에서의 성능과 안정성이 크게 업그레이드된 면세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통합 테스트를 완료하며 시내 면세점 특허 취득 이후 즉각적인 매장 오픈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신세계는 면세점 입지인 1만3500㎡ 규모의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을 고객의 기억에 남는 ‘마인드 마크(Mind Mark)’로 만들겠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12일 신세계디에프는 서초·강남 지역의 관광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5년간 3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호텔, 백화점, 극장, 서점, 레스토랑 등 센트럴시티의 다양한 인프라와 교통망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객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 마인드 마크 면세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막판 변수’ 뭐가 있나

##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로비의혹 특허수수료 올리면 ‘식물 면세점’ 우려

정치권 “반드시 따질 것” 아직 진행형 부정행위 확인되면 선정 취소 가능성

기재부 수수료 20배 인상 개정 추진 매출액 0.1~1.0% 추가 납부도 부담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3곳 발표가 17일 확정된 가운데 입찰 후보 기업들이 PT 준비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직전이나 이후까지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시내 면세점에 대한 관세청의 특허권 심사는 17일 저녁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으로 특허 입찰 연기나 심사 무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관세청은 애초 일정대로 심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누가 선정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연장선에서 시내면세점 사업에 대한 특검 수사와 야당의 반응 등은 중차대한 변수로 남아있다.

지난달 신규면세점 추가 특허의 특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물론, 롯데와 SK까지 압수수색한 데 이어 특검에서도 면세점 특허심사 로비·특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적용되는 등 대가성이 입증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면세업계에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관세청은 선정 이후 거짓이나 부정행위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부정행위 방법으로 특허권을 취득한 신규면세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송

영길 의원 등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의혹들은 반드시 따져볼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정치권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여야 3당은 지난 7일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 간 회의를 통해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특허권이 예정대로 선정되고 취득 기업이 운영에 나서도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기재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추진과 명품 유치 등에 따라 고만고만한 매출에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는 ‘식물 면세점’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20배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수수료율은 현재 0.05%에서 면세점별 매출구간별로 0.1~1.0%로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출액 2000억 원 이하의 면세점은 매출액의 0.1%를 특허 수수료로 내게 되며 매출액 2000억~1조 원인 면세점은 0.5%, 1조 원 초과는 1.0%를 내게 된다. 이 안대로라면 롯데면세점은 기본수수료 42억 원 외에 100억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이에 면세업계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 유치도 면세점 실적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면세점 매출의 절대치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명품 브랜드다. 명품 유치가 면세점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방한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의 모회사인 케링그룹의 프라수아 앙리 피노 회장을 만나 사업을 논의하려고 산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영경 신세계 총괄사장 등 국내 주요 유통기업 오너들이 앞다퉀 찾아간 것이 이를 방증한다. 김하니 기자 honey@

**ERNEST BOREL**  
1856

**Duke Collection**  
GG7351-28191BR

에르네스트보렐 공식수입원 (주)티보스 1661-5705 | 공식온라인샵 <http://www.tbossmall.com>

[서울] 두타면세점(동대문점) 1833-8800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경기] 사론워치(안양점) 031-463-9788 |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충청] 신세계백화점(충청점) 041-640-5081 | [제주]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제주점) 064-780-7669

[www.ernestborel.ch](http://www.ernestborel.ch)



2014년 대한민국 식품대전 소비자품평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대상' 수상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산해진일이든  
메밀밭에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듯이 흥분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  
메밀꽃 필 무렵 3000년

# 국내산 메밀로 만든



“재료가 정직해야 맛도 정직합니다.”

국내산 메밀을 원료로 정직하게 생산하여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먹거리를 올리겠다는 일념,  
**(주)봉평농원의 이유있는 20년 고집입니다.**  
앞으로도 정직한 재료로 건강한 먹거리만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품 품목】** 부침류 : 메밀부침가루, 찰수수부침가루, 찰수수부꾸미가루, 감자부침가루, 감자수제비가루, 메밀막국수가루, 메밀가루 면류 : 메밀국수, 메밀막국수, 메밀비빔막국수, 메밀소바, 메밀칼국수, 찰수수국수, 메밀냉면, 메밀비빔냉면 기타 : 메밀미숫가루, 심곡미숫가루, 봉평촌미숫가루, 메밀쌀, 메밀차, 통메밀차

전국 대리점 모집!! ☎ 031-323-0052

www.bongpyung.com

메밀꽃필무렵 봉평촌

검색

[주]봉평농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진동길 18-10 Tel. 031.323.0052 / 033.333.8942 Fax. 031.323.0473

# 투기 수요 빠져나간 세종, 청약 미달

최근 2년 미달 제로... 경쟁률 전국 2위  
11.3 규제지역에 묶이면서 투자자 이탈  
'세종 힐데스하임 2차' 일부 미달 발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바뀐 것도 한몫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청약 사상 최고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던 세종시가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11.3 대책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투자수요가 이탈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일 청약 1순위 접수를 받은 원건설의 '세종 힐데스하임 2차'가 청약 1순위를 다 채우지 못하고 미달됐다. 이 아파트는 31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710명이 몰려 평균 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9개 타입 중 6개 타입만 1순위로 마감됐다. 미달된 타입 중에는 청약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었다.

'세종 힐데스하임 2차'는 앞서 완판됐던 '힐데스하임 1차'보다 교육환경 등이 양호해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조사됐지만, 청약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대 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세종시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당첨만 되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데다 세종시 거주자는 청약 당첨되기가 쉬워서 이미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한 투기수요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빈집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세종시 내 빈집의 비율은 20.3%로 분양을 받은 후 세종시 이주를 포기했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임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도한 투기수요로 몸살을 앓던 세종시는 결국 11.3 대책으로 1순위 자격요건을 포함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1년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로 강화됐다. '세종 힐데스하임 2차'는 이 같은 규제가 강화된 후 처음 분양한 단지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실수요 대신 투자 수요만 있는 현장은 청약 미달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세종시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전과 같은 과도한 청약경쟁률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 중개시장 판 흔드는 '트러스트'

6억 주택 매매 수수료 99만원  
기존 중개소 300만원과 큰 차이  
1심 승소 판결 이후 문의 급증  
하루 200여통 전화 '즐거운 비명'

기존 중개업계와의 법정분쟁 1차전에서 승리한 트러스트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트러스트부동산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는 이날 기준 아파트 매매가 1000여 건 올라와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매매가 827건, 경기권 175건 등이다.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의 대표 공승배 변호사가 지난달 7일 무죄로 판결나기 직전 780여 건보다 28% 늘어났다.

하루 30~50통 수준으로 걸려왔던 문의전화도 1심 승소 판결 이후 200여 통까지 늘었다. 수수료가 일반 공인중개소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트러스트 측 관계자는 "집을 사고파는 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와 매매 종류 등을 묻는 문의가 많다"며 "트러스트부동산 자체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는 문의 전화도 늘었다"고 말했다.

아직 서울과 경기권 지역 매매가 대부분인 데다 빌라 매매는 24건에 그치고 있지만, 지금의 관심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트러스트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공인중개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다. 트러스트는 매매금액이 2억5000만 원(전·월세 3억 원) 미만이면 45만 원, 그 이상이면 99만 원을 일괄 적용한다. 반면 공인중개소는 주택을 매매할 때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이내의 중개보수 상한율을 적용한다.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중개시장에 지각변동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여겨져 나온다.

법원은 지난달 공 대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 측과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업계가 공 변호사를 항소할 계획이어서 양측은 조만간 2라운드 법정공방에 돌입하게 된다. 항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수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급지구 B-6블록	신안인스빌 퍼스트리버	84	800
서울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	39~109	1091
경남 밀양시 내이동	e편한세상 밀양강	84, 112	441
충북 청주시 가경동	청주 가경 아이파크	59~114	905

## 나들목 인접 아파트 잘나가네~

김포·상일IC 등 도로 진입 빨라 출퇴근 시간 단축... 집값도 높게 형성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난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목 아파트, 즉 IC(나들목) 인근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내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대중교통 여건과 함께 도로의 접근성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전세난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나가 매대로 전환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나타나고 있다.

IC와 인접해 교통 편리성이 뛰어난 아파트는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다. 김포시에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김포IC)와 개화IC를 통해 올림픽대로 진입이 쉬운 고촌은 일대는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KB시세(11월 16일) 기준 1001만 원에 형성돼 있다. 반면 IC에서 조금 더 떨어진 풍무동은 3.3㎡당 796만 원이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IC에 인접한 단지 중심으로 청약열기가 뜨거웠다. 리얼투데이에 올해 경기 도에서 분양한 단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하남미사강변도시 제1공영체(82대)'가 가장 높았다. 이 단지는 하남미사강변도시에서도 상일IC 인접도가 뛰어나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활용해 잠실과 강남 이동이 편리하다.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았던 '동탄2신도시 린스트라우스(79대)'도 동탄JC와 인접해 있다.

신규 분양 단지들도 인근 IC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수요자 마음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하철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경우 IC 등 도로교통 상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56번지 일원에 '청주 가경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동측으로 청주 제2순환로가 위치하며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경부고속도로 청주IC 등도 인접해 있다.

대림산업은 남양양IC와 밀양IC가 인근에 위치한 경남 밀양시 내이동 1408-29 일원에 'e편한세상 밀양강'을 분양 중이다. 신안 역시 수서IC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산지급지구 B-6블록 신안인스빌 퍼스트리버'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서울에서도 IC와 인접한 곳에서 신규분양이 이어진다. 삼성물산이 서울 성북구 석관2구역에 재개발한 '래미안 아트리치'는 월릉IC를 2km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월릉IC는 서울 북동부와 북서부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LH, 전국 171개 국민임대단지 예비입주자 1만271가구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71개 국민임대주택 단지 1만271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60㎡ 이하의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1만271가구로 수도권 44개 단지 2219가구, 지방권 127개 단지 8052가구다. 인천소래1·3단지, 인천논현3, 광명소하6, 부천범박1, 고양삼송18, 대전도안1, 대전남월석천들, 전주효자6, 광주용봉, 광주수원8 등 입지조건이 우수한 단지가 대량 포함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수준으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수도권 국민임

대는 임대보증금 2000만~4000만 원에 평균 임대료 20만 원, 지방권은 평균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료 16만 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가구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 소득총액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37만 원, 4인 가족은 377만 원 이하여야 한다.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 원, 자동차는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입주자격 강화 전 마지막 모집이다. 오는 30일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총 자산을 2억1900만 원 이하로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이 시행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블랙박스 아무거나 달지 마세요!

**브랜드를 보고 선택 하셔야죠!**

블랙박스는 역시 -

## 아이나비

강소라가 강력 추천하는 아이나비 프리미엄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950 View1

강소라  
O haneul  
1271가구에 ♥

# ‘트럼프 보호무역’에 경고 메시지 보낸 왕젠린

(다렌완다그룹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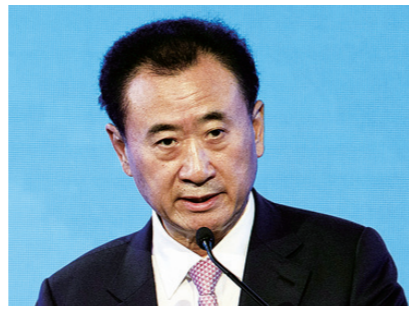
## 美 영화협회장 만나 “M&A 막으면 미국내 일자리 2만개 잃어” 왕, 할리우드 영향력 막강... 中 기업, 美 기업 인수 제동에 반기

중국 최대 부호인 왕젠린(사진) 다렌완다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정책에 선전 포고를 날렸다.

12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왕 회장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영화협회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날 포럼 연설에서 도드 회장이 자신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예정이며 트럼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왕 회장은 “그래서 나는 도드 회장에게 ‘내가 미국에 100억 달러 넘게 투자했으며 2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왕 회장은 제3자를 통해서까지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거세게 부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이다. 지난 달 말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왕 회장의 미국 할리우드 시장 공세를 정중하며 우려를 표했다. 왕 회장이 최근 몇 년간 공격적 M&A를 통해 미국 영화산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고, 향후 M&A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슈머 대표는 잭 루 재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렌완다 그룹과 같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가 중국 정부의 이익에 맞춰 조정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고위 인사까지 중국의 미국 기업 M&A에 대한 우려를 표함으로써 중국 기업 M&A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게 됐다.

왕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엔터테인먼트 기업 M&A를 통해 세계 최대 극장업체인 AMC엔터테인먼트를, 35억 달러에 영화제작사 레전더리엔터테인먼트를 각각 인수했다. 최근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할리우드 TV 콘텐츠 제작사 디클라크프로덕션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20세기폭스나 타임워너의 자회사 워너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영화사 인수에도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왕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최근 자신의 M&A 행보에 대해 의회에서 나온 반대의 목소리는 수많은 의원 중 한 명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공식 취임해 중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일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할리우드 영화들이 성장세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그의 보호무역주의 대선 공약들이 주로 중국과의 공산품 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당선될 경우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 애플 10억 달러 출자 검토

미국 애플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조성한 정보기술(IT) 전문 투자펀드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애플은 최대 10억 달러(약 1조1699억 원)를 출자하는 방향으로 소프트뱅크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현 시점에서 확정된 것이 없어서 협의의 진전 정도는 불투명하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손잡고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라는 이름의 이 펀드에 5년간 최소 2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글로벌 큰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셈이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4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아부다비 국부펀드도 이 펀드에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애플은 이 비전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의향이다. WSJ는 시가 총액 약 6000억 달러 기준 세계 최대인 애플이 세계 최대 IT 전문 투자펀드에 투자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WSJ는 애플이 이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최근까지 소형 IT 업체 지분 투자가 주축이었던 애플의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올해 중국 최대의 배차 서비스업체 디디추싱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소프트뱅크도 디디추싱에 투자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은 인공지능(AI)과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인터넷화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애플은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물론 소프트뱅크와 애플의 약 10년에 걸친 인연도 작용했다. 손 사장과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었다. 소프트뱅크가 2008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아이폰을 독점 판매한 것도 이 덕분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국가정보국 국장 후보 오른 피오리나 CEO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즈(HP) 최고경영자(CEO)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 이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경선에서 자신의 경쟁자였던 피오리나를 차기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오리나는 경선에서 트럼프 지지수로 불렸던 인물. 트럼프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 도중 피오리나가 TV 화면에 등장하자 “누가 저 얼굴에 투표하고 싶겠냐”며 인신공격을 가했었다.

뉴욕/AFP연합뉴스

## 부동산 버블붕괴 전망·보험사 투자 규제 악재에...

# 中증시 6개월새 최대폭 하락

중국증시가 6개월 만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월 폭락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12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2.47% 급락한 3152.97로 마감해 지난 6월 13일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중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보험당국이 자국 보험사들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투자심리가 냉각됐다고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수개월간 이어져온 안정세에 당국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중국 선전증시와 홍콩증시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통이’ 지난 5일 공식 개막했으나 투자자들의 불안은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위량 사장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 안에 중국 분양주택 거래량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집값이 빠르게 올랐던 도시들은 가격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위량 사장의 경고에 부동산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완커 주가가 6.3%, 경쟁사인 폴리부동산이 3.0% 각각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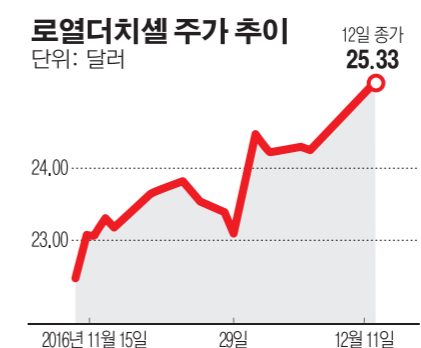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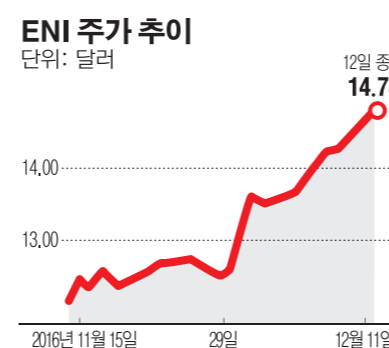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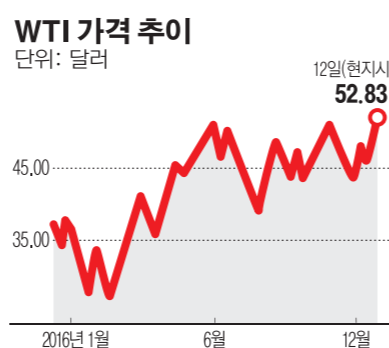
그동안 중국증시를 지탱해 왔던 보험사들이 당국의 규제에 직면한 것도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는 9일 에버그린대생



명이 투자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주식투자를 금지시켰다. 보감회는 앞서 지난주 초 전해인수보험의 주식투자 창구인 유니버설보험 판매도 3개월간 중단시켰다. 전해인수보험은 9월 자사가 보유한 거리전기 지분을 점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거리전기 주가가 6.1% 급락했다. 전해인수보험이 지분을 보유한 CSG홀딩이 9.3%, 광동샤오닝그룹이 8.3% 각각 폭락했다.

9월 말 기준 보험사들이 보유한 중국 상장사 주식은 총 1조400억 위안(약 175조 원)에 달했다. 이는 2년 전보다 8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들의 주식 투자가 투기를 조장해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류스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은 이날 초 “보험사들이 불투명한 자금으로 차입 매수에 열중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국제유가 고공행진... 전세계 인플레이 우려

배럴당 52.83달러 17개월새 최고... 물가 상승 이어질 듯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이어 OPEC에 가입하지 않은 산유국들까지 감산에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린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2.6% 배럴당 52.8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7개월 만의 최고치다.

1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리시어를 포함한 비OPEC 산유국들은 하루 총 55만8000배럴을 감산하기로 했다. 지난 달 30일 OPEC이 하루에 120만 배럴씩 줄이기로 합의한 데 따른 연장선상이다. 당시 15년 만에 OPEC이 감산에 합의하자 국제유가는 사흘 동안 14% 치솟기도 했다. 비OPEC 산유국

까지 감산에 가세한 결과 내년 전 세계 원유 공급은 현재보다 2%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저유가로 신음하던 OPEC 회원국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졌다. 유가 상승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중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중국의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PI)도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유럽과 미국의 물가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역시 주요 물가지표로 간주하는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가 지난 9월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 올랐다.

물가 상승 기대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보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14일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데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도 2%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12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01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5%를 넘었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도 0.021%포인트 오른 0.072%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국제유가 급등에 에너지 관련주도 뛰었다. 12일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 정유회사인 로열더치셀은 1.52%,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ENI는 3.72% 각각 상승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F-35 비용 통제 불능”

트럼프, 보잉 이어 록히드마틴 판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항공·방산업체에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F-35 도입 프로그램이 비싸다는 이유로 판지를 걸고 나섰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35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이 트럼프의 트위터 공세를 받는 회사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F-35 프로그램과 비용은 통제 불능”이라며 “내년 1월 20일(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이후에는 군사 부문과 다른 구매에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트럼프의 트윗에 록히드마틴 주가는 이날 최대 4%가량 급락했다가 낙폭을 줄여 2.5% 빠진 253.11달러로 마감했다.

록히드마틴과 방산 분야에서 경쟁하는 보잉도 최근 트럼프의 공격을 받았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비용이 너무 비싸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이에 보잉은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허리를 굽혔다. 록히드마틴도 이 전례를 따를지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는 2001년 F-35 프로젝트 비용을 2330억 달러로 책정했으나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은 1조4000억 달러(약 1637조 원)로 불어난 상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호주 이스라엘 등 11개 동맹국이 이 전투기를 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발 지연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구매 단가가 높아지면서 미국도 당초 계획보다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공군과 해병대에 일부 체계가 들어갔으며 해군은 2020년 무렵에야 도입될 예정이다.

항공모함 등 다른 프로젝트에도 트럼프의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낭비되는 연방정부 예산을 찾아내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감세 덕에... 中 지난달 車판매 사상최고

259만대 판매... 작년보다 17%↑  
업계 “세제혜택 기간 연장” 요구

중국의 11월 자동차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형차 감세 조치 종료로 앞두고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자동차제조협회에 이날 중국 11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17% 늘어난 259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증가폭은 10월 20%에 비하면 소폭 둔화한 것이긴 하나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소비자들 구매에 몰리면서 1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판매 대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곧 올해 전체 실적 호조로 이어질 것으로 보

인다고 WSJ는 설명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전년 대비 7%, 포드자동차는 17%, 닛산자동차는 17% 각각 늘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본토 기업들은 외국 기업보다 더욱 호조를 보였다. 장성기차는 43% 급증했고, 볼보자동차의 모기업인 지리자동차는 전년 대비 거의 두 배가 늘어났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6리터 엔진 차량이나 소형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이 크게 반등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신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170만 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판매에 날개를 달아줬던 소형차 감세 혜택은 이달 말 종료된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NEW  
신상 품

# 방수, 보온, 편안함은 기본! 초경량 논슬립 아웃솔 까지! 잔디로 워킹 컴포트화!

잔디로 BSR 워킹 컴포트화는 발의 변형 및 통증을 개선하고  
보다 편안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발 모양과 형태에  
맞는 신발을 생산합니다.



남녀공용 워킹 컴포트화 / 카키 LM2607-07



남녀공용 워킹 컴포트화 / 브라운 LM2607-02  
사이즈: 225mm ~ 285mm



남녀공용 워킹 컴포트화 / 네이비 LM2607-08  
사이즈: 225mm ~ 285mm



남성용 워킹 컴포트화 / 브라운 LM2607-24  
사이즈: 245mm ~ 285mm



여성용 워킹 컴포트화 / 브라운 LW7607-04  
사이즈: 225mm ~ 255mm



여성용 워킹 컴포트화 / 레드 LW7607-05  
사이즈: 225mm ~ 255mm



남녀공용 워킹 컴포트화 / 블랙 LU2609-01  
사이즈: 225mm ~ 285mm

서울역점: 02)6959-4900 (지하철 1호선 4, 5번 출구방향 연세 세브란스 빌딩 아케이드 18호)  
목동점 02)2608-7400 강남점 02)562-0009 전주점 063)276-5000 www.jandiro.com





# 인간은 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장문기의  
인간경영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최악이 만연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배층 부패가 눈에 띈다. 부패가 국정 전체를 더럽히고 탐욕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지배층이 이러하니 그 하위층은 어떠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가 말해주는 바가 그물망에 얽힌 혼탁한 한국사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그간 세계 최고 빈곤국가에서 산업화에 성공해 10위 안팎의 경제대국을 이룬 나라, 외세의 침략과 식민통치 그리고 독재 군사정치를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세운 나라로 추앙받아 왔다.

13세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 사회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한 로저 베이컨(Roger Bacon)의 글을 보면 인류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베이컨의 글이다.

“종교계가 하나같이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라. 새로운(수도원)의 성직자들도 처음에 갖고 있었던 존엄성이 몹시 손상된 상태다. 모든 성직자가 자만심, 음란함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 파리에서도, 옥스퍼드에서도 성직자들이 벌이는 싸움과 말다툼을 비롯한 온갖 악행 때문에 평신도들은 분노하고 있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가리지 않는 데 무관심하고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직부패가 국정 전체를 더럽히고 탐욕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고위 성직자들도 돈을 굶어모으는 데 눈이 어두워 영혼의 구원은 소홀히 하고 관심도 없었던 셈이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섯 번째 열린 시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 함성들이 말해주고 있는 한국의 국가적 위기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세계 민주화 역사에 뚜렷하게 기록될 이번 촛불시위(국민) 시위는 바로 이순신 장군이 앞에서 지키고 세종대왕 동상이 내려다보는 광장에서 질서정연하게 무혈혁명을 연출했다.

이제는 반혁을 요구하는 함성이다. 무서운 대통령, 나쁜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 부패한 대통령을 몰아내고, 한국의 잘못된 정치를 바

꿔야 한다는 국민의 함성이다. 전광판이 알려준 150만 명의 촛불시민이 광화문광장을 잔란하게 비웠다. 밤하늘처럼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한국 정치사회가 국민의 힘으로 상징되는 시민촛불로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만난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저술가에게 정치지도력에 환멸하고 있는 촛불시민행영의 국민들에게 호소의 글을 써서 마스크를 통해 발할 것을 당부하고 동의를 얻기까지 했다. 모 신문 대기자에게는 책임 있는 언론의 영향력 있는 기자로서 공감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시대적, 국가적 사명의 각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호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온 국민을 불행에 빠뜨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권력, 돈, 명예, 유행, 쾌락 어느 것 하나 원인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있다. 진리, 자유, 평등, 사랑 등과 같은 가치관이다.

위안부 문제를 걸말 짓는 한국 정부의 자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자기 생각엔 분명하게 국제적으로 일본이 아닌 외부의 압력이 있어서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으며, “그 배후 세력이 미국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제재에 있어서도 산유국으로 막강했던 이라크를 제거했던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력을 갖고 어떻게 지금까지 미뤄두고 있는지도 물었다. 아울러 그 책임을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협조로 추궁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것은 결국 북한 카드를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을 내면서 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가리지 않는 데 무관심하고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로저 베이컨의 글을 보면 인류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문을 쓸 것을 긴 시간의 전화로 약속받기도 했다. 한국정치에 이렇게 열을 올려 소리를 내보기는 처음이다. 80대의 나이에 이르러 뒤늦게 말이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곳은 중국 장쑤성에 있는 한 호텔이다. 9일 상하이에 도착해 초청해준 두진웨이 강도건설 집단 부총재와 고속도로를 몇 시간 동안 달리던 중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 결과를 들었다. 두진웨이 부총재는 한중관계가 다시 좋아질 것이란 예감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밝게 웃었다.

두진웨이 부총재로부터 한중, 중미, 중일, 중북, 중러 등 조금은 의외로 중국인의 민낯이 드러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또 10억 원의 돈을 일본으로부터 받고 일본의

아이했다. 한국이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가로서 국가적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남북통일의 협력을 요청한다면 중국은 꽤나 협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다.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니 미국, 일본 편도의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등 4강 국가들과 균형 있는 안보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역설했다.

한국과 중국이 지금과 같이 불편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숨은 아시아 지배 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을 꼬집은 셈이다.

한편 이젠 업무가 정지된 청와대의 고독한

주인공 박근혜 대통령이 떠올랐다. 대통령이 라는 국가지도자로서의 명분과 지위 그리고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채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최순실게이트의 대통령’으로 발거벗은 왕처럼 추한 모습으로 떨고 있는 박 대통령의 참담한 표정 말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추구하는 행복은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불행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일어난 처절한 현실을 보며 미국의 자연주의 대시인이자 작가인 ‘휘트먼’의 시가 떠올랐다. 그의 시 ‘내 자신의 노래’ 일부를 적어본다

“한 마리 짐승이 되어 그들과 함께 살고 싶다. 저렇게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이 있는 것을 나는 선 채로 짐승들을 오래오래 바라본다. 그들은 그들의 처지 때문에 떠돌아 일하거나 투덜대지 않는다. 그들은 한밤에 잠 못 이루며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울지 않는다. 그들은 신에 대한 의문을 논하면서 나를 구원질나게 하지 않는다. 어느 하나 불만이 높이지 않고, 어느 하나 소유욕에 미치지 않고, 어느 하나 탐욕에 무를 꿰지 않으며 천 년 전 조상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어느 하나 점잔을 빼거나 원한을 품은 놈이 없다”

그렇다. 인간을 짐승과 비교할 때 무엇이 우월한단 말인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왜 그렇게 소중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성서를 빌려 말하면 ‘나(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한다. 여기서 인간의 행복을 얻어가고 불행하게 하는 금지적 우상은 권력, 돈, 명예, 유행, 쾌락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온 국민을 불행에 빠뜨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권력, 돈, 명예, 유행, 쾌락 어느 것 하나 원인이 아닌 것이 없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들 모두는 인간의 삶을 맛나게 해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있다. 진리, 자유, 평등, 사랑 등과 같은 가치관이다. 휘트먼이 노래하고 있는, 짐승들이 누리는 자연스러운 행복한 삶이 부럽다. 짐승들은 권력, 돈, 명예, 유행, 쾌락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서 말이다.



## 태종 옆에서 조선 건국 내조 왕비가 된 후 좌절에 빠지다

오늘날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자리한 현릉. 원경왕후가 태종과 함께 묻혀 있는 곳이다. 태종의 정비 원경왕후 민씨(1365~1420)는 개경의 명문가 출신이었다. 원경왕후는 열여덟에 두 살 아래인 이방원(태종)과 혼인했다.

원경왕후는 혼인 후 10여 년간 이성계가 세 왕조를 창건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여성이었다. 원경왕후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남편과 한뜻으로 태조 이후의 대권을 향해 내달렸다.

원경왕후는 목숨을 위협당하는 상황도 마다하지 않았다. 태종이 정도전을 제거할 때, 남편이 화를 당했다고 오인한 원경왕후는 함께 죽을 각오로 현장으로 향했다. 나중에 정도전이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발걸음을 돌릴 만큼 의지가 강한 여성이었다.

태조가 왕자들이 관할하는 군사를 혁파하는 조치를 내렸을 때에도 원경왕후는 무기와 말을 몰래 준비해 두었다. 아내의 도움으로 이방원은 두 차례 왕자의 난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후일에 태종은 세종에게 “사직을 세울 때 너의 어머니 도움이 매우 컸고, 그 동생들과 함께 갑옷과 병기를 정비해 기다린 공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원경왕후의 성공과 보람은 거기까지였다. 태종이 왕이 된 뒤 원경왕후는 빼어난 현실에 직면했다. 그 첫 번째가 후궁이었다. 태종이 왕실 인정을 명분으로 무려 9명의 후궁을 들이자 심신이 너무나도 컸다. 가족에게 딱친 참화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다. 양녕대군의 혼사 문제를 태종 모르게 아버지와 의논한 일이 화근이었다. 남동생 4명 모두 유배지에서 죽었으며, 아버지 민제도 이 일로 몸져누웠다 세상을 뒀다.

열여덟 살에 혼인해 서른여섯에 왕비가 된 원경왕후는 18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남편의 성공을 본인의 성공이라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원경왕후가 왕비가 된 이후의 행적을 보면 태종과 의논하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국왕 권위에 도전한 사건으로 비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심지어 이 일들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겪었다.

원경왕후는 왕비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생애에서 가장 잔란한 시절을 종결지었다. 국왕과 왕비의 간극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였다. 원경왕후에게 필요한 것은 부당한 현실을 감내하는 인내심과 달란된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판단력이었다. ‘적응’은 ‘순응’이 아니기에 치욕이 아니다. 그래서 원경왕후의 좌절이 못내 아쉽다.

정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조선시대 여성사 연구자 저서 ‘조선의 여성 역사가 다시 말한다’ 논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조선시대 여성사 서술과 개선방향’ 등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 건립추진협의회

###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070 시니어 매거진 Monthly Magazine

# BRAVO My Life

김영원 배우·유재홍 W 회장 다시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처럼

이봉규의 심층대담 방송인 김성경의 성적 판타지

캐바스트리 비로스 나를 돌보기

겨울철 건강 챙기는 따뜻한 산약초 사브사브

중년 여성 '재능' 싹틔우기 하나 말이 하나

김성경이 만난 CEO 스토리 은퇴교육 열정 전도사 유인홍 탄생의 화계법인 부회장

12 2016-Dec

### COVERSTORY 비로스 나를 돌보기

PART1. 자기다운 삶은 '비교급'이 아닌 '절대급'으로 사는 것

PART2. 가까운 미래를 계획하며 나만의 삶 돌보기

PART3. 7사 7촌 나를 위한 돌봄 이야기

PART4. 나를 위한 투자 시작해볼까?

PART5. 美, 온전히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PART6. 스스로에게 자각증을 주는 마음 다스리기

PART7. 몸부터 살려라

PART8. 동년기자에게 듣다 최은주·장영희·박종섭·강신영·김종영·최원국 동년기자

문화관 답사기 한무숙 문화관

문화가 흐르는 길 옆, 문학 숙녀의 아지트를 탐방하다

해학의 4번 출구를 나와 해학동 로터리에서 길을 건너 3분가량을 걸었다. 한무숙 문화관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보고 고개를 가웃했다. 우습게 걷고 뛰던 대학로 길 옆. 이 익숙한 거리를 수없이 지나다면서도 문화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서자 문화관 입구가 보였다. 긴 숲을 내쉬고, 무거운 나무 대문을 열고, 그녀와 첫인사를 나눴다.

12월의 산책

또 하나의 작은 지구 '국립생태원'

기온이 뚝 떨어지면, 밖에서 노닐고 싶은 의욕도 뚝 떨어지기 마련이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맹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따뜻한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 한겨울에 만나는 열대우림과 사막, 신비로운 생물이 가득한 국립생태원에서라면 가능하다.

### 신라보가 만난 사람

세상 앞에서 당당한 마인스트 유진규

힘이 다하는 날까지 무대 위에 서겠다

60세에 시작한 기자로서의 인생 2막, 희망의 전기가 되다

기자 겸 사진작가 조이스 리, 용감무쌍한 길 위의 여자

“치과의사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말 수 있죠?”

장영준

대한비메슬론엔터테인먼트 회장

### 겨울철 건강 챙기는 따뜻한 산약초 사브사브

찬바람 부는 겨울이면 뜨끈뜨끈한 국물이 떠오른다. 특히 모음이 잦은 연말에는 함께 즐기 좋은 사브사브가 제격이다. 고기와 함께 채소와 버섯 등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즐긴다는 것도 매력. 여기에 우리 몸에 좋은 산약초까지 곁들인다면 어떨까? 산약초 사브사브 맛집 '술내음'을 소개한다.

12월의 맛

### 이봉규 심야 데이트 “남자들의 자격지심이나?”

대학생 아들을 둔 김성경(45), 자신감 하나는 국가대표급이다. 이것이 오늘의 대체 불가능한 방송인 김성경을 만든 원천이 되었고 그녀는 현재 아나운서가 아닌 방송인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남자가 리드해줄 때 성적 판타지가 충족될 것 같다는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 동년기자들의 페이지

김종대·박혜경·이경숙·신용재 동년기자 크리스마스에 생긴 일

### 박익성이 만난 귀촌

충남 천안시 병천면 시골에 사는 이기순씨 부부 참을 수 있는 고난, 참을 수 없는 흙 사랑

CEO 칼럼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푸드마일리지 줄이고 웰빙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이다. 먹는 것, 즉 섭취행위는 우리 삶과 직결된 생존의 필수요소다.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매체도 음식과 관련한 주제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요즘 방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을 먹는 방송인 일명 '먹방'이다. 신문과 잡지도 음식 관련 정보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영화평론가



후회는 언젠가 영화가 된다

스란히 깨먹었다. 아니, 그 이상이 날아갔다.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극장가는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모두들 평일 저녁 6시 '땡' 하면 집으로 돌아갔다. 8시 뉴스를 봐야 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새로 터졌나?'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마다했다. 배달을 받아 '치맥'으로 세상 관전을 했다. 평일에는 그렇다치고, 극장가는 주말이 대목인데 지난 7주간 주말에 다들 서울 광화문으로, 부산 서면으로, 광주 금남로로 나갔다. 정부가 적당히 개편이여야 했다. 너무 개편이면 영화가 망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 해가 됐다.

문만이었다면 수백 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그것도 두 달 가까이 주말마다. 사람들은 정말 못 살겠다고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 영화인들이 전력을 다해 시위에 나섰던 이유는 대통령과 그 주변을 탄핵하고 응징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리다가는 영화계가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사람은 영화를 봐야 한다. 권력자들일수록 더 봐야 한다. 영화 속 장면이 민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타널'에서는 여성 장관을 얼마나 속더지게 그려는가. 최근 개봉된 '판도라'에서 대통령은 얼마나 무능하고, 총리는 얼마나 간악하게 그려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중에 어떻게 정신을 차려 수습책을 마련하는가. 그것이야말로 '판도라'의 리얼리티를 떨어뜨린 요소가 될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얼마나 강했으면 감독이 그렇게 캐릭터라이징을 해냈겠는가. 그러니 지금이라도 나가서 영화 좀 봤으면 좋겠다. 관저에 앉아서 막장 드라마나 보지 말고, 바깥 공기도 좀 쏘고... 사람들이 극장을 가는 이유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셈이 됐다. 그러니 제발 뽑지 말라고 했을 때 얘기들을 들었어야 했다. 후회하면 뭘 하겠는가. 그 후회는 언젠가 영화로 대변될 것이다.

신선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국의 소비운동가 팀랭 교수가 시작한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운동은 세계적으로 환경보전과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확산일로에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100마일(약 161km) 안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사용자는 '100마일 다이어트', 네덜란드는 '그린 케어 팜'(Green Care Farm), 일본은 '지산지소'(地산지消), 이탈리아는 '슬로푸드' 등이 각각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토불이'(身土不二)와 지자체별로 확산되는 '로컬푸드'(Local Food)를 통해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텃밭으로 얻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가 줄어들어 공동체적 신뢰 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이다.

건강한 먹을거리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농경원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인당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은 8.9kg로, 시장 규모가 1조 2700억 원에 달했다.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비용을 더 지불할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들은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가까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의 2016년 식품소비행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친환경 식품 구입 경험이 있는 가구비율도 2014~2015년 45%에서 올해 55%로 증가했다.

웰빙을 위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에 변화가 일고 있다.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는 것은 지구를 보존하고 웰빙을 이루는 길이다.

오동진의 영화편, 세상판

한 해가 더디게 간다. 그런 해도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사건사고가 많으면 그렇다. 기억해야 할 일이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2016년 12월 9일은 아마도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다.

세상은 뜨거웠지만 극장가는, 영화계는 철뒀을 맞았다. 사람들이 도통 영화를 찾지 않았다. 수입된 외화들은 줄줄이 망했다. 지난여름 이상 폭염으로 극장가는 폭발했다. 극장만큼 시원한 데가 없고, 만 원짜리 한 장으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극장만 한 곳이 없었던 까닭이다. 극장가 추산으로 올여름 매출은 예년 대비 20~25% 뛰었다. 허구한 날 적자 타령을 하던 (만은 수는 없지만) 극장 관리자들은 오랜만에 표정관리를 했다. 영화도 수작들이 쏟아져 나왔다. '곡성'부터 시작해서 '아가씨'와 '택세' 등, '인전상륙작전', '밀정' 등등 사이 좋게 관객들을 400만~600만 명씩 나눠 가졌다. 정부가 '개편'이여도 영화 판은 알아서 살아간다는 말이 나왔던 이유다.

그런데 그 매출 신장률을 지난 10월 말부터 12월까지 고

오늘의 인물 12월 13일 로버트 싱크

1951년 4월 중공군의 춘계 1차 공세가 시작되자 미군 제7사단 부사단장인 로버트 프래드릭 싱크(1905.4.3~1965.12.13)는 한국계 미국인 김영옥 대위(1919.1.29~2005.12.29)에게 미군 및 한국군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인제군 계운동 계곡의 다리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영옥은 전자 소대를 다리 남쪽에 일렬로 세워 놓고 후퇴하던 중대급 한국군 보병들과 함께 임시 방어선을 구축해 무사히 후퇴하게 지원했다.

1년간 듀크대학교를 다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한 싱크는 보병 장교로

한국전 참전...평생 군인의 길 걸은 '美 전쟁영웅'

임관해 평생 군인의 길을 걸었다. 베닝 기지의 501 낙하산 보병연대에 배속된 그는 낙하의 달인으로, 매년 생일 때마다 강하하는 공수부대원이 됐다. 베닝 기지는 미국 남북전쟁(1861~1865) 때 조지아 주의 콜럼버스에서 활동했던 장군 헨리 루이스 베닝의 이름을 따서 지은 기지로, 입구에 있는 육군 보병박물관에는 한국전기념관도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506 낙하산 보병연대를 지휘했던 그는 부대에 남기 위해 2번의 진급도 사양했는데, 이것이 리처드 윈터스 소령(1918.1.21~2011.1.2)과 절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노르

망디상륙 작전과 마켓가든 작전에서 2번의 전투 작하도 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으로 돌아간 싱크는 이후 일본 류큐(琉球)사령부 참모장으로 있다가 1951년 1월 7일 보병사단 부사령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싱크는 1961년 중장으로 예편했고, 4년 뒤 사망했다.

HBO와 BBC의 합작 미니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베트남전쟁 퇴역 장교인 데일 다이가 싱크로 분했으며, 영화 '머나먼 다리'에서 미국 배우 엘리엇 구드가 연기한 '모버트 스타우트 대령' 역 역시 그를 소재로 한 것이다.

정대명 편집부 차장 dmjang@

온라인 토닥토닥



올해도 연탄 1만8000장 기부...충북 제천의 '얼굴 없는 천사'

충북 제천에 올해도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을 기부한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났다. 12월 제천시에 따르면 8일 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30대 여성이 편지봉투를 맡기고 황급히 나갔다. 봉투 안에는 1만8500장의 연탄 보관증과 "올겨울도 많이 춥다네요.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제천시에는 익명

의 독지가가 올해로 14번째 연탄 2만 장가량을 기증하고 있다. 제천시는 기증받은 연탄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60여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네티즌은 "세상은 아직 따뜻하군요", "14년이나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니 정말 존경스럽네요", "아름다운 분! 분명히 복 받을 거예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ij0403@

카드뉴스로 보는 세상



7일 개봉한 영화 '판도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전폭발 사고라는 예고 없이 찾아온 대한민국 초유의 재난 속에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사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무기력한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을 그려내며 현실과 닮은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내달 초까지 현실과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나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군대 비리 등 다양합니다. 단, 사회비판 영화를 보러 가기 전 연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avXkoD>

ISO 9001 인증업체

아이타올(주)

THE BEST

CROCODILE

OF YOUR LIFE

라인 타올

로고자수 타올

[www.itowelmall.co.kr](http://www.itowelmall.co.kr)

대표번호 02) 755-1091

데스크 칼럼

‘한국판 디트로이트’ 멀지 않았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배경에 미국 제조업의 몰락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 제조업 몰락의 상징은 바로 ‘디트로이트’다. 오대호의 하나인 휴론과 이리호를 있는 작은 강의 이름이 바로 디트로이트다. 1701년 프랑스 장교인 앙투안 드 라 모트 카나디악(Antoine de la Mothe Cadillac)이 5명의 프랑스로 캐나디안과 세운 인근의 마을이 그 시작이다. 미국 고급 차의 대명사 캐딜락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덕분에 모피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이 같은 입지는 1896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 공장을 세운 계기가 됐다. 이어 크라이슬러도 이곳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서 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2차 대전을 계기로 디트로이트는 ‘민주주의의 군수 공장’으로 불리며 성장 기도를 달렸지만, 1980년대부터 저평가되고 성능이 좋은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상륙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일본 덕분에 흥하고, 일본 때문에 추락한 셈이다.

중심 산업의 몰락은 중산층이 최하층으로 몰리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3년 포브스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 1위로 디트로이트를 선정하기도 했다. 미 대선 후 현지 언론들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중하위층 제조업 종사자들에게 주목했다. 제조업 부활을 통한 미국의 부활을 유권자들이 원했다는 분석들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많다. 미국의 무역 적자나 재정



한지운 산업1부장

적자 때문에 중산층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미국 내에 상당히 팽배해 있지만, 미국이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고립주의와 산업 보호 장벽은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을 유도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미국에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또한 4차 산업시대 문턱을 넘고 있는 지금, 제조업의 진흥이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하다.

하지만 중국 수입 제품 45% 관세, 멕시코 생산 제품 35% 관세 부과 등, 트럼프 차기 정부의 과격한 정책을 잠시 걷어 내면, 미국의 제조업 살리기 공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생산 공장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전화를 걸었다. 그간 미국이 추진해왔던 ‘디

쇼어링’ 정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기업이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것을 ‘오프쇼어링(off-shoring)’,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리쇼어링(reshoring)’이라 한다. 이미 미국·일본 등은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찌감치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우리 정부 역시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률인 ‘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해 해외 생산 시설의 국내 복귀를 지원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중소기업 80여 곳에 불과하다. 대기업이 돌아온 사례는 LG전자가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의 세탁기 생산 시설 일부를 국내로 옮겨온 것이 유일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조선·해운업이 대거 집중된 경남 지역은 이미 수만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구조조정 수위는 더 강도 높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곧 우리 산업을 이끌어 왔던 중공업 단지가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같은 몰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한국판 디트로이트’다.

일지라는 줄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들은 세계화 전략을 내걸고 글로벌 생산 거점을 외치며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은 돈을 버는데, 국민은 일이 없어 빈곤해지는 상황이다. 기업이 자본 논리에 이윤만 좇는다면, 현재의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강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때다. 추악한 정치 스펀들로 인한 ‘식물 정부’ 상태가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까 우려스럽다.

goguma@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2부 차장

국정농단 뒤에 숨은 위협

얼마 전까지도, 사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최순실 국정농단의 폐해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던 사이 정작 짊어여 할 다른 부분들을 놓쳤음도 고백합니다.

지난 5일 제53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말이 기념식이 행사가 분위기는 초라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던 수출이 작년(-8.0%)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으니깐요. 수출액이 2년 연속 뒷걸음질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8년 이후 58년 만이었습니다. 수출 주도 대기업이 이제 성장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인데, 가계 빚마저 폭증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달 말 기준 1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새 130조 원 이상 늘어난 거예요. 3분기에는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까지 사상 최대인 11조 원을 넘었습니다. 당장 돈이 없는데 은행권 대출이 어려우니,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서민 대출이 옮겨가는 셈이지요. 가정과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느 때처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도 문제입니다. 사상 최대 피해에 우리는 무감각해졌습니다. 농림부 집계를 보니 살처분 규모가 26일 만입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14년 AI 사태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그뿐만이요, 최근에는 군 내부 전용 사이버망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 해킹 세력에 뚫렸습니다. 우리 군의 사이버 방어전선이 무너진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 조사



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심각성을 알리는 목소리는 너무 작지만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방위사업청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의 인상을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 책임자가 내뱉은,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에게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걱정됩니다.

외교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롯데그룹의 현지 사업장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 의지는 아니었겠으나, 롯데가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 국방, 외교 등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관련 공직자를 다그쳐야 할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탓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습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이제 놓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년 무역의 날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수출상 기업을 대폭 증가하고 대통령이 기념식장에서 기업인들과 함께 함차게 파이팅을 외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junior@

객석 칼럼: 공감·소통...상생발전 출발점. 강영중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기자수첩: 창조경제, 안녕하십니까. 조성준 산업2부/atiatio@

지난 5일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회의 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고 추후 노사 합의의 이틀이 지난 후 자주 반는 질문이 있다. 민감한 문제를 수월하게 처리해 낸 비결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그럴 때면 ‘공감과 소통’이라고 답해준다.

공단 경영진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직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공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호소한 것이었다.

실무적으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모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했다. 우선 노무, 인사, 보수, 평가, 교육 실무자 등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TF팀을 출범시켰

다. 여기에는 부서별, 직급별 대표자는 물론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했다. 홈페이지에 ‘성과연봉제 알리미방’을 개설하고 TF팀의 회의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투명성 확보 못지않게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전 직원 설명회, 노사 한마음 워크숍, 소그룹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소통을 이어갔다. CEO와 노조지부장과의 1대 1 면담도 수시로 마련했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경영진의 약속에는 ‘공정한 평가 체계 마련’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노사 합의 이후 관련 전문가 초청 워크숍, 평가자 대상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성과연봉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함으로써 이 제도가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함께 약속하는 상생 발전의 출발점이 되도록 쟁겨 나갈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국내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전망과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창조경제 사업 역시 이 같은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벤처·스타트업에 키우자는 취지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업무 시작일인 12일, 전국 17곳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부분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업무가 진행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예산이 최근 국회 심의에서 큰 삭감 없이 통과됐지만, 각 지자체 예산은 삭감되고 있어 내년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일부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

극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차은택 감독이 눈독을 들였던 융합형 문화 콘텐츠 사업 조직이 기술 창업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창조경제’라는 단어의 명칭 변경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생태계는 그대로지만 창조경제의 이미지가 나빠진 만큼 명칭을 변경해 다음 정권 이후까지 관련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것들보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이다. 센터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가장 많이 떨고 있는 약자이지 않을까. 센터의 눈치를 보는 이들이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창조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의 환상은 여전히 유효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의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이준구 지음 | 288쪽 | 문우사 | 값 18,000원

# 대어 펼떡였지만... 쾡쾡 언 공모주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

## 2016년 IPO 결산

올해 코스피 17곳·코스닥 65곳 상장  
82곳중 59개 기업이 공모가 밑돌아

올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 중 70% 이상의 최근일 주가가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은 상장 실적도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업체는 스팩(SPA) 상장을 비롯해 총 82곳이다. 코스피 시장이 17곳, 코스닥 시장이 65곳이다. 이 중 11곳이 스팩 상장을 통해 증시에 진입했다.

이들 기업의 지난 9일 종가와 공모가를 비교해 보면 23개(전체의 28%) 기업만 공모가보다 높다. 나머지 59개(71.2%) 기업의 최근 주가는 공모가에 미치지 못했다. 공모가 대비 하락률 평균은 -4.59% 수준이었다.

### 바이오리더스·장원테크 60%대 손실 해태제과·두산밥캣 20% 오르며 체면

공모가 대비 주가 실적이 가장 저조한 기업은 바이오리더스였다. 지난 7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바이오리더스의 공모가는 1만6150원이지만 이달 9일 종가는 5720원에 불과했다. 바이오리더스 상장 일주일 후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장원테크 역시 공모가는 1만7500원이었지만 최근 종가는 8270원으로 두 기업 모두 60%대 손실을 내고 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지난 7월 29일 상장한 두울이 8500원대 공모가를 지키지 못하고 최근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동제약 역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일동홀딩스와 제약으로 지난 8월 분할상장한 후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최근 주가는 1만6450원으로 공모가 2만87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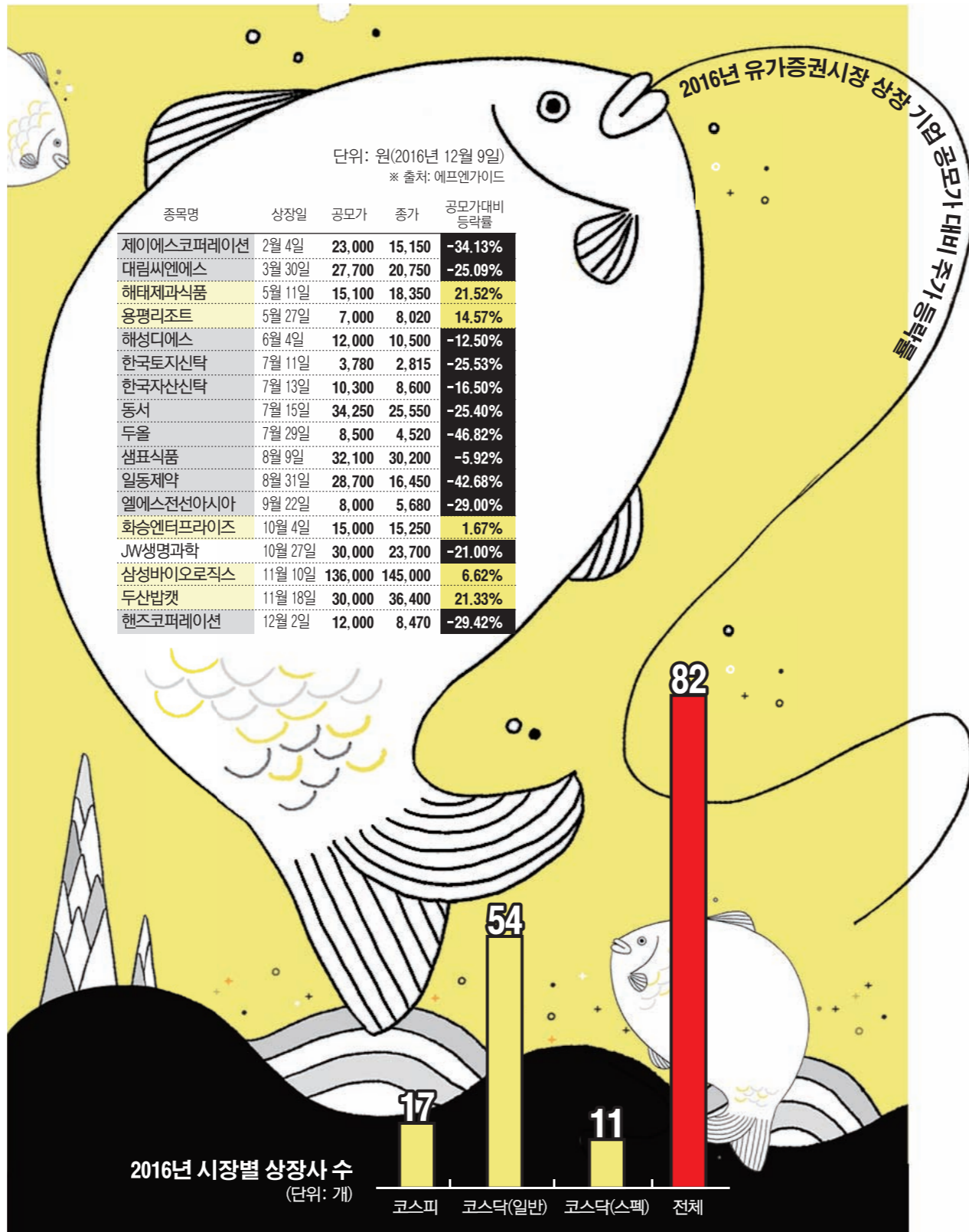
### 국내외 경제·정치적 불확실성 커져 상장 목표 절반도 못채우고 연기·철회

반면 지난 5월 분할 재상장한 원익IPS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주회사로 개편 후 원익IPS가 지난 9월 테라세미콘을 흡수합병하는 등 호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해외기업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10월 나란히 상장한 잉글우드랩과 골든센츄리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 각각 99.17%, 87.14% 올랐다.

코스피시장에서는 해태제과식품과 두산밥캣이 그나마 체면을 지켰다. 두 회사 모두 공모가 대비 최근 주가가 20% 오른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IPO 목표로 코스피 25개사, 코스닥 140개사를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가 2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닥 상장 목표치는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 쏟림현상·불확실성 크지만 IPO는 여전히 '기회의 시장'

2016년 12월 12일 기준 신규상장 누적 공모금액은 약 6조4000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이후 세운 공모규모 10조 원 돌파 이후 첫 5조 원을 넘어선 수치다.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규모는 2012년 1조 원 규모로 바닥을 친 뒤 지속적으로 우상향했다. 지난 2년간 4조 원대에 머물다 올해 처음으로 6조 5000억 원 돌파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국내 IPO시장은 공모 규모로 볼 때 2012년 이후 가장 돋보이는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외형적 측면이 아닌 질적 측면을 들여다 보면 여전히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다.

그중 하나가 지난해와 비슷한 '연말 IPO 쏠림 현상'의 반복이다. 12월 현재 기준 신규 상장기업 66개사 중 상반기에 상장한 기업은 20개사에 그쳤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상장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선 충격 여파와 국내 국정 불안이 연말 증시 침체로 이어진 가운데 공모기업 쏠림현상을 가속화했다.

10월과 11월에만 22개사가 공모를 진행시켰다. 상반기 6개월 동안 해소된 물량을 하반기 2개월간 모두 상사(?)시키는 기업을 도한 셈이다.

이러다 보니 10월 특정 시기에만 공모기업 10여개사 한꺼번에 몰려 수요예측 및 청약일정이 겹쳤다. 또 동종업계 상장으로 기업의 적정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 결국 상장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했다.

이는 연초부터 한국거래소가 연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공모시점 분

산, 공모대어 조기결연 등 상장예정 기업과의 일정 조율을 강조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무색한 결과다. 그나마 올해는 지난해 10개 이상 기업이 하반기 상장 철회를 결정한 것과 달리 절반에 그쳤다는 게 위안거리일 수 있겠다.

올해도 이제 20여일 남짓 남겨둔 상태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지만 정국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연말까지 상장을 앞둔 공모기업도 있다. 연말 IPO기업의 '악전고투'가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내년에는 호넷롯데를 제외한 대형 빅딜이 많지 않다. 내년 상반기 치뤄질 대선까지 감안하면, 내년 IPO시장 역시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반면, IPO 시장은 국내 자본시장을 견인하는 마중물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만큼 호전될 여지도 크다. 롯데그룹의 순조로운 IPO와 기술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는 테슬라 요건 신설 등 상장 주관사 입장에서 또 다른 성장요인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있다.

대외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실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

즉, 불확실성을 이기는 펀더멘털과 경쟁우위를 지닌 준비된 기업이 제대로 IPO를 치를 수 있도록 IPO 환경과 제도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정선 IR유더스 매니저



## 밥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맛있는 음식 뿐이 아닙니다

계란반찬 한 개라도 나눠먹는  
나눔 한 입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차린  
협동 한 접시

부모님이 먼저 드시길 기다리는  
존중 한 수저

동생을 위해 생선가시를 발라주는  
배려 한 접

## 인성 밥상

함께하는 밥상에서 아이의 인성이 자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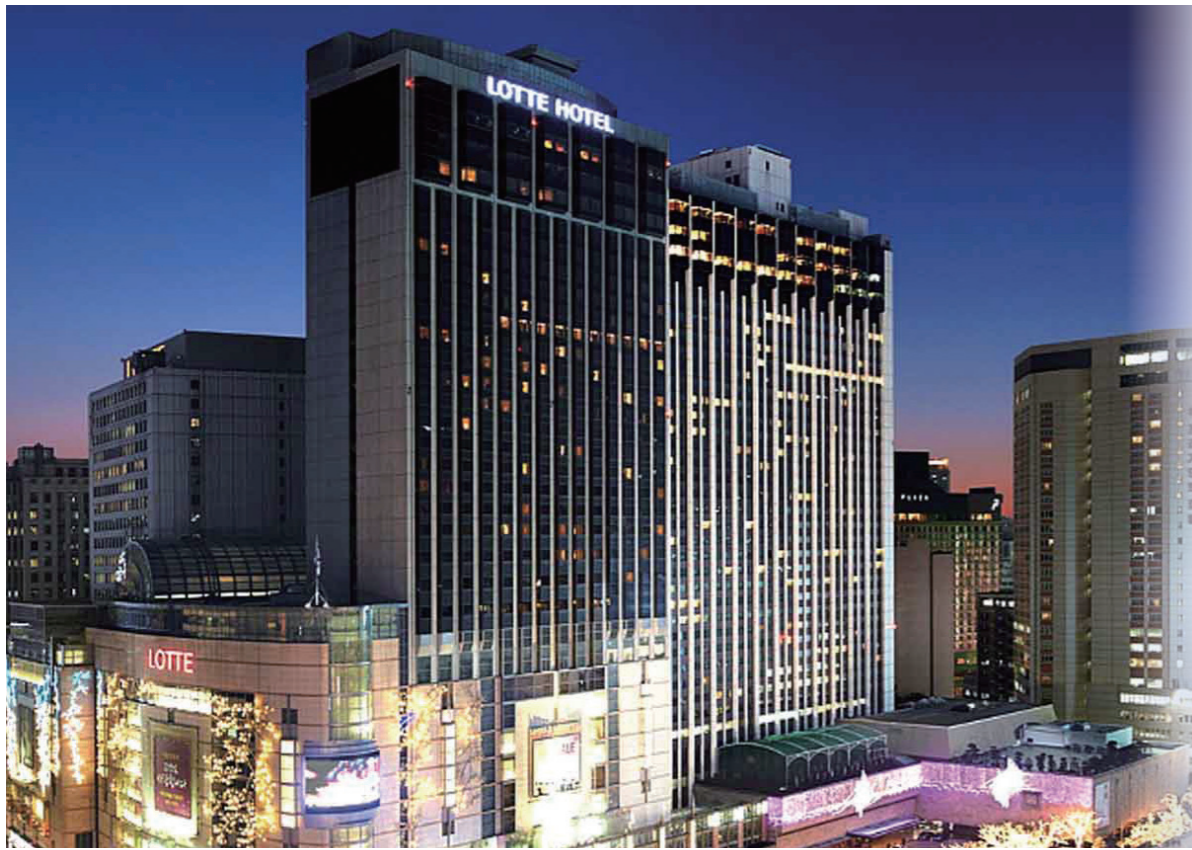
초록우산 인성교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관, 지역본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문의 •  
1588-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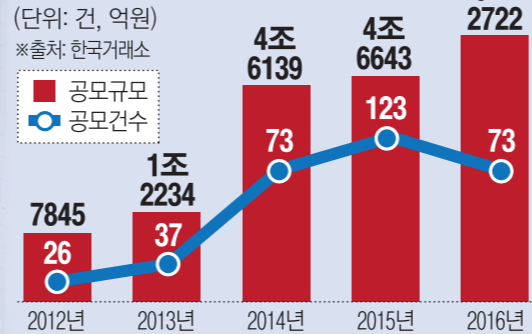
# 안갯속 내년 IPO... 호텔롯데 상장으로 '봄날'은 올까



2017년 IPO 추진 주요 기업

기업	예상 상장시기	예상 공모규모
넷마블	2~3월	2조원대
남동발전	6월	1조원대
동서발전	6월	1조원대
호텔롯데	하반기	4~5조원대
셀트리온헬스케어	상반기	약 5000억원
대성전기공업	상반기	1000~2000억원
제일홀딩스	상반기	약 5000억원
동원엔터프라이즈	-	2000~3000억원
코리아세븐	-	약 5000억원
이랜드리테일	-	약 3000억원

최근 5년간 공모시장 주요 지표



“현재로서는 올해 공모주 시장의 한파가 계속될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A 증권사 기업금융부 담당자)

올해가 20일도 남지 않았지만 내년 기업공개(IPO)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다 할 ‘빅딜’이 예정돼 있지 않은 데다 최대 정치 이벤트인 대통령선거까지 치러지는 만큼 시장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내년 IPO시장이 대체로 올해와 비슷한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호텔롯데의 상장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 예정된 ‘빅딜’ 없고 대선 등 불확실성 커 시장전망 불투명 투자·소비 부진 낮아진 경제성장률도 IPO 흥행에 악영향 신동빈 회장 “호텔롯데 재상장”...예상 공모가 4조~5조원 시장상황 따라 롯데 다른 계열사들 IPO 잇따를 가능성도

◇호텔롯데 상장에 내년 IPO시장 성패 달려 = 올해 IPO시장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산밥캣의 공모를 끝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올해 IPO기업 수는 12월 현재 73개사(스팩 포함 82개사)로 지난해(123개사)보다 줄었지만, 공모금액은 6조2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5% 상승해 성장세를 이어갔다. 공모금액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0년 이후 6년 만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관련 기관의 집계도 늦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거래소는 12월이면 다음 연도 IPO시장의 수요조사 결과를 만드는데 올해는 아직 이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각 증권사 IB부서의 데이터를 취합해야 하는데 아직 증권사들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가장 큰 변수는 한 차례 상장이 무산됐던 호텔롯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호텔롯데의 상장을 재추진한다고 공언했지만, 총수 일가는 현재 배임 혐의를 받고 기소된 상황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호텔롯데의 상장은 무산될 가능성

이 있다. 넷마블게임즈, 이랜드리테일, 셀트리온헬스케어, 동서발전, 남동발전 등이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호텔롯데의 비중을 상쇄할 만한 규모는 아니라는 평가다.

대기업 계열사의 IPO라면 무조건 환영하던 시장 분위기도 변했다. 일례로 두산밥캣이 대표적이다. 두산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우량기업이었음에도 최악의 공모청약 미달 사태로 고배를 마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고평가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호텔롯데가 공모를 진행하더라도 ‘묻지마’ 투자는 없을 것이라 얘기다. 일각에서는 호텔롯데가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규제 분위기 등으로 이전과 같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호텔롯데가 성공적으로 공모를 마친다면 내년 시장 분위기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 호텔롯데의 예상 공모 규모는 4조677억~5조2641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공모금액(4조6642억 원)과 맞먹는다. 기업 가치를 이전 같이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코스닥시장에서만 약 2조 원가량 공모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기록은 무난히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장 상황에 따라 롯데 계열사들의 IPO 추진이 잇따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통령선거·경기부진 등 변수 많아 = 호텔롯데 외에도 내년 IPO시장을 불

투명하게 만드는 변수는 많다. 우선 내년엔 대통령 선거라는 초대형 정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탄핵안 심판 결과에 따라 선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가운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정국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상장을 미루기 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선거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성길 거래소 상무주임은 “경험적으로 불 대 선거와 IPO시장의 연관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라며 “시장이 정치 이슈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정책의 초점이 어느 쪽에 놓이느냐 하는 부분에 반응하는 것인데, 역대 정권들은 모두 성장 활성화와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낮아지는 경제성장률도 IPO 시장 전망을 아슬하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내 주요 경제기관은 물론 국내외 금융기관이 일제히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투자부진과 소비부진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부서 관계자는 “IPO 시장은 기업 실적에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민간소비가 위축된다면 코스닥 등에 상장돼 있는 협력사들의 실적도 줄줄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풀죽은 공모주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

3~6개월 수익률 -0.03%~-0.04%  
최근 3개월새 4100억 빠져나감

올해 공모주 시장이 한풀 꺾이면서 공모주펀드 수익률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반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산밥캣 등 대어(大魚)로 꼽히는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이어졌지만 금리상승 기조와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모주펀드 시장은 기대만큼 활기를 띠지 못했다.

연초 이후(지난 9월 기준) 공모주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0.89%에 그쳤다. 6개월, 3개월 수익률은 각각 -0.04%, -0.0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내외 시장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주식형 펀드가 각각 -1.19%, -1.58%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공모주펀드도 부진한 국내 증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달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채권금리가 상승(채권가격 하락)한 점도 공모주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2~3%)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가 됐다.

수익률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금이 탈도 지속됐다. 공모주펀드에서는 최근 3개월 새 4100억 원 규모의 뺄자돈이 빠져나갔다. IPO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하고 여기에 채권금리 상승세가까지 맞물리면서 공모주펀드의 자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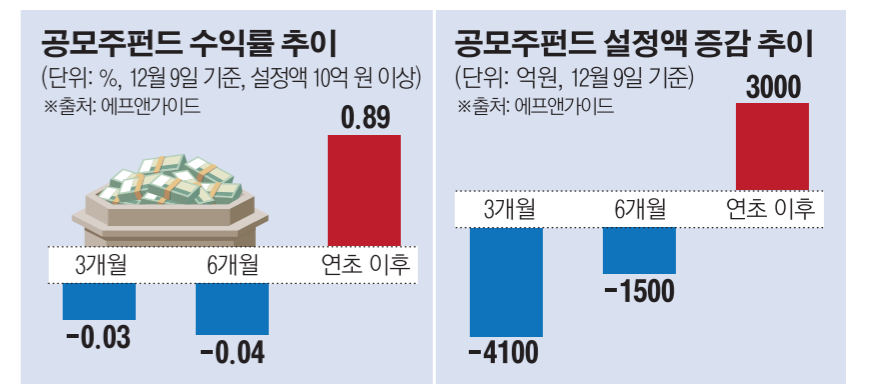
탈이 가속화했다. 공모주펀드는 자산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10% 안팎을 공모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연초 이후 개별상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하나UBS파워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lass C’가 26.6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GB100년공모주(호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w’, ‘GB100년공모주(호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A1’, ‘DGB메자닌분리채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등이 3%대 수익률을 거뒀다. 같은 기간 공모주펀드 중 36개 상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자재(주식)펀드와 천연자원펀드는 각각 38.01%, 23.40%의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과 환경규제 철폐 공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하면 철강, 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관련 수요가 급증, 관련 펀드에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봤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수요예측 실패 및 높은 공모가 산정, 증시 부진 그리고 채권금리 상승 등 올해 공모주펀드 시장 침체 요인이 많았다”며 “내년에도 국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중위험·중수익의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outy@



**체온 1도 UP 이 답이다**

**공기대류시스템으로  
겨울, 천연 솜 발열체로 따뜻하게~  
여름, 3D에어매쉬로 시원하게~**

공기대류 및 과열방지 특허

수면과학, 인체과학, 체온과학, 운동과학

**솔고 스마트 꿀잠**

신개념 사계절 잠자리

세계 특허 기술의 건강한 잠자리, 솔고 스마트 '꿀잠'

THE SHILLA SEOUL | LOTTE HOTEL SEOUL | PARADISE HOTEL BIKAN

신라호텔 | 롯데호텔 | 파라다이스 호텔

스마트 꿀잠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유는  
**대한민국 No.1. 솔고의 메디컬 온열과학 특허 기술력**

- 공기대류시스템**: 90% 공기층이 입체적으로 퍼져진 신소재 3D에어매쉬에 SR발열체가 장착되어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가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대류·순환되는 시스템.
- 자기제어시스템**: 탄소발열체 SR발열시스템은 기반저항시스템으로 설정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전기를 차단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유해전자파가 없으며, 전기절전대비 40% 전기세가 절감되는 세계 특허 기술.
- 체온분산시스템**: 일반 매트리스의 80배에 달하는 420만개 이상 지지대로 만들어진 3D에어매쉬의 입체 구조임이 신체 압력과 충격을 흡수, 분산시켜 최적의 편안함과 휴식을 제공한다.
- 천연 솜 원료의 SR탄소발열체**: 일반매트의 전기열선이나 연상발열체가 아닌 천연 화학, 항공, 전자산업 등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형 SR발열시스템으로 미국 FMA 및 세계 38개국 안전인증 획득.
- 신소재 3D에어매쉬(독일공법)**: 통풍과 복원력이 뛰어난 3D에어매쉬는 지속적인 압력에도 내구성이 뛰어나며 공기를 순환시켜 곰팡이, 유해세균 번식 방지 및 포름알데히드가 전혀 없는 친환경 섬유.
- 최우려한 온도조절기**: 고강력 하이그라피 LED램프를 장착하여 야간에도 편리하게 온도조절이 가능.
- 과열방지**: 특수 안전 설계
- 전기파 방출**: 원적외선 방출
- 질산/강제성**: 질산성계

대한아트피플리 우수 추천 제품

제품사양

상품명 스마트 꿀잠  
모델명 121-0111(1인용)/EM01-1603(2인용)  
안전인증번호 H#0762-2011(1인용)/H#0742-14018(2인용)

정격전압 AC220V, 60Hz  
소비전력 60W(1인용)/300W(2인용)  
본체규격 1000×2000×30mm(1인용)/1500×2000×30mm(2인용)

고객상담 및 문의 **1670-9880** 전시장

www.solco.co.kr

마포 02)337-688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1길 14 2층  
수원남문 031)257-1500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4번길 23 코베리백화점 1층  
신분 031)397-9471 경기 군포시 신분로333번길 4-17 군포프라자 803호

# 코스닥 이전 상장...“국방·헬스케어 토털기업 글로벌 공략”



솔트웍스

지난해 7월 코스닥에 상장한 후 1년여 만에 코스닥 이전에 성공한 솔트웍스가 국방·헬스케어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도 약한다.

솔트웍스는 2008년 설립돼 독자적으로 개발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방과 의료 분야에서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소기업이다. 지난 5일에는 IBKS제4호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정식 데뷔했다.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 국방 및 방위 산업의 정보화 솔루션과 함께 의료 분야에 특화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 본사 및 연구소를 두고 대전과 경남 사천에 국방 사업을 위한 사무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김기호 솔트웍스 대표는 “코스닥 상장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국방 분야의 영업력을 강화하고 의료 분야에서 한국형 디지털 병원 수출 확대에 일조해 미래 신사업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솔트웍스는 주요 방위산업 업체들과 함께 육·해·공군의 훈련과 무기 체계에

군사훈련 등 군수 솔루션 독보적 코넥스 1년만에 스펙 합병 상장  
신뢰 향상...의료IT 시장 도전장  
정부 ‘의료해외진출법’ 정책 수혜  
디지털병원 수출 미래 먹거리로

맞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무기 체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종합 컨설팅을 시작으로 전자식 기술교범의 개발한 가상현실 기반의 훈련 또는 정비용 시스템 개발 등을 맡고 있다. 특히, 기술교범 제작을 위한 전자식 솔루션을 보유,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eXPIS’는 방대한 기술 자료를 디지털 문서로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전자식 기술교범(ETM)을 위해 솔트웍스가 개발하고 진화시키는 솔루션이다. 국내 최초의 웹 기반으로 특히 항공무기 체계에 최적화됐다. 우리나라 공군 무기는 물론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등 주요 한국 수출기를 보유한 국가에서 이미 eXPIS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솔트웍스는 가상훈련 시스템

(VTS)를 통해 실제 훈련상황을 재현한 영상과 시나리오를 솔루션 기반으로 제공한다. 종합 군수지원(ILS)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무기 체계 운용을 위한 종합 컨설팅도 제공한다.

솔트웍스의 매출은 VTS와 ILS에서 약 85%가 발생한다. 주로 한국항공우주(KAI)나 LIG넥스원 등 국내 대표 방위산업 업체의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 사업은 첨단 무기 체계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방위력 개선비와 해당 연구개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솔트웍스는 국방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했다. 그 결과 최근 의료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미 보유 중인 솔루션들이 의료 시장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솔트웍스는 의료정보시스템 통합 솔루션 개발을 진행했고, 이미 임상사결정시스템(CDSS)과 클라우드기반종합검



김기호 대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서울사무 흥보관에서 솔트웍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관리서비스플랫폼(TOLAR) 등의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에 성공했다. 앞으로 솔트웍스는 의료 기기 및 IT, 교육훈련 등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디지털 병원 패키지의 수출이나 유지보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CDSS는 의사의 진료 행위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며, 의학적으로 기정돼 있는 가이드라인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 또한, TOLAR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으로 검사의뢰 및 결과, 분석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솔트웍스의 의료 분야 실적은 이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모스크바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이미 체결했고 중국 옌벤 지역의 의료정보화시스템 수출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 ‘디지털 병원 수출을 위한 진료 서비스 시스템 개

발 사업, ‘능동형 임상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 총 5건의 국가 과제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의료 클라우드 및 디지털 병원 솔루션이 상용화되면 이 부문 매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의료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솔트웍스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세계 디지털 병원 관련 시장은 올해 471조 원 규모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5.7% 성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내 의료 기술 및 인프라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의료해외진출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솔트웍스의 최종 목표는 국방과 의료 분야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과 헬스케어의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김기호 대표는 “국방IT 부문에서는 이미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경쟁력을 갖췄고 앞으로는 의료포함한 여러 민수 사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코스닥 상장은 본격적인 글로벌 도전에 앞서 기업 가치와 신뢰 향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강원랜드

KANGWON LAND

## 폐광지역에 꽃핀 MICE산업...사계절 리조트로 제2 도약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에 의해 1998년 설립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호텔을 비롯해 골프장, 스키장, 콘도와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호텔을 연이어 개장하면서 ‘하이원’이라는 브랜드로 연간 이용객이 500만 명에 달하는 고품격 힐링리조트로 발전해 가고 있다.

강원랜드가 리조트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은 폐석터미 위에 조성한 골프장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폐광지역의 이미지를 녹색의 관광휴양지로 전환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했다.

◇명품 골프장으로 성장 = 2005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하이원C.C는 하이원리조트의 핵심 휴양시설로 2008년부터 5년 연

2011년 국제적 컨벤션호텔 개장  
국제스키연맹총회·세계명상대전  
전시·박람회산업 성공적 유치  
2018년까지 워커파크 조성 완료  
골프·스키장 갖춘 복합리조트로

속 한국 10대 퍼블릭 코스에 선정될 정도로 명품골프장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듬해인 2006년에는 백운산 자락에 슬로프 18면, 총연장 21km의 스키장을 개장했다. 이후 하이원스키장은 시설과 설질(雪質) 등 세계 유수의 스키장과 견줄 만한 ‘대한민국 대표 스키장’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강원랜드는 연면적 4만6699㎡에 지상 23층, 객실 수 250실, 대규모 행사 유치가 가능한 2040석의 대형 컨벤션홀과 이벤트를, 브리핑룸, 피트니스&스파 등을 보유한 컨벤션호텔을 개장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강원랜드 =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취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2000년 스포 카지노 개장이후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약 6조586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으며, 그중 폐광지



협승희 대표



강원랜드 컨벤션호텔의 겨울 경관.

역 개발기금과 지방세로 1조5788억 원을 납부해 지방재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또 강원랜드는 강원도 일자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3분기 기준 강원랜드에는 3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5300여 명에 달하

는 대규모 인員이다. 무엇보다 폐광지역 주민 우대정책으로 강원지역 주민 고용 비율이 76%에 달한다.

강원랜드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시작된 만큼 폐광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상생발전에 역점을 두고 2016년 기준 27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온가족이 즐기는 친환경 고품격 힐링리조트 = 강원랜드는 친환경 고품격 힐링리조트를 완성하기 위해 단지 내 워터월드, 폐광지역 4개 사·군을 연계한 관광상품 ‘정(정선)·태(태백)·영(영월)·삼(삼척)’과 겨울레포츠 등 체험과 투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총사업비 1672억 원이 투입되는 워터파크 조성사업은 단지 내 기존 폭포주차장 일대 12만3899㎡에 스파시설과 운동시설 및 야외 물놀이 시설 등 연면적 3만 287㎡ 규모로 2018년 개장할 예정이다. 워

터파크가 개장되면 사계절 복합리조트의 마침표를 완성하게 된다.

또한 ‘산악형 친환경 힐링 리조트’를 지향하는 강원랜드는 2016년 2월에 열린 ‘세계명상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국제적인 ‘힐링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강원랜드는 2012년 국제스키연맹(FIS) 총회에 이어 2016년 세계명상대전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MICE사업에 대한 자신감 확보와 동종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강원랜드는 차별화된 힐링 리조트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힐링과 명상을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2011년 말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인 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국인 카지노 운영권이 기존 2015년에서 2025년까지 10년 연장돼 각종 현안 사업들도 더욱 큰 추진력을 얻게 됐다.

김우람 기자 hura@

www.119medical.co.kr

**즐거움 치과**  
119메디칼치과  
Dental Clinic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 남아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 예약했습니다.

# 도깨비 판도라 흥행 돌풍... CJ E&M·NEW '함박웃음'

CJ E&M의 주가가 tvN 드라마 '도깨비'의 시청률 상승과 맞물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NEW 역시 영화 '판도라'의 흥행으로 주가가 상승곡선에 접어들었다. '한한령(限韓令)'에 따른 엔터주 투자심리 위축에도 콘텐츠 경쟁력으로 위기를 타파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첫 방송을 시작한 '도깨비'는 1회 시청률 6.3%를 달성했다. 이는 최고 시청률 18.8%를 달성한 '응답하라 1988'의 1회 시청률 6.1%를 넘어선 성과로 CJ E&M 모든 드라마를 통틀어 1회 최고 시청률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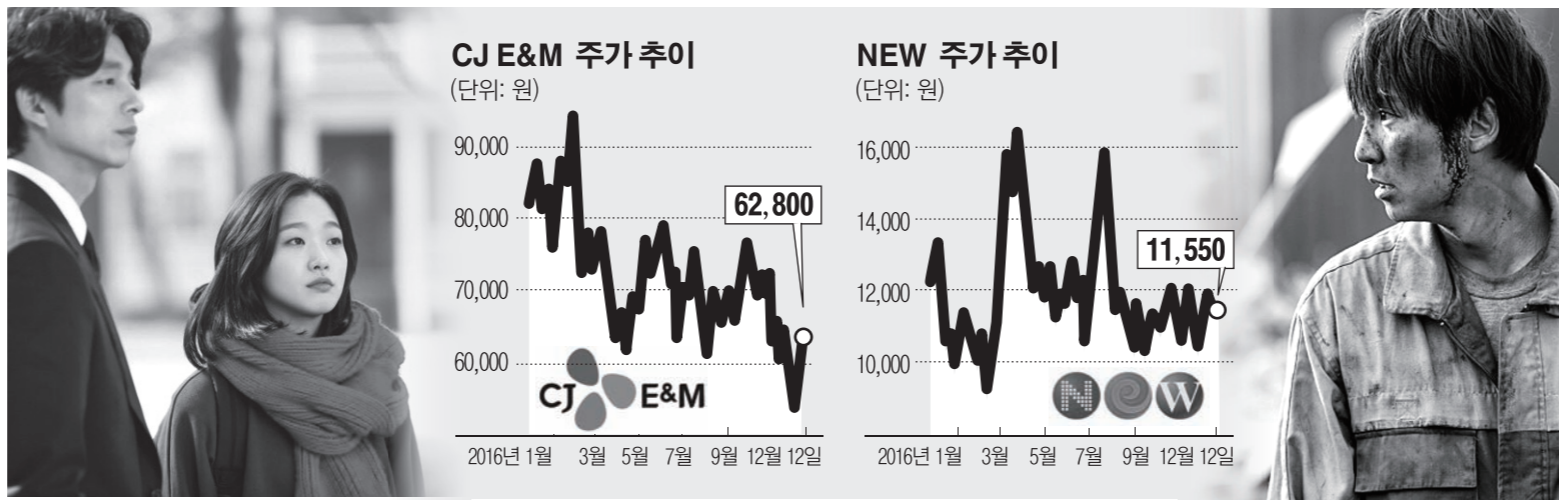
'도깨비'의 시청률은 2회 7.9%, 3회 12.5%, 4회 11.4%를 기록하며 역대 tvN 드라마 중 상승세가 가장 빠르다. '응답하라1988'은 5회 만에 시청률 10%를 돌파했고, '시그널'은 11회가 지난 후 10%를 넘어섰다.

이 같은 영향에 CJ E&M의 주가는 9일 전일 대비 5.21% 오른 6만6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최근 상승세다. CJ E&M은 지난 2일 증가 5만 34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지만, '도깨비'의 가시적 성과로 5거래일 만에 13.48% 급등했다.

증권업계는 CJ E&M이 tvN에서 방송하는 콘텐츠의 높은 시청률을 통해 광고수익의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 tvN, OCN 및 지상파 드라마의 제작과 유통 매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960억 원에 달하는 CJ E&M 방송 부문의 무형자산도 올해 4분기 대부분 상각될 예정으로 내년 방송에서만 약 7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CJ E&M의 최근



## '도깨비' 첫회 시청률 6.3%...역대 최고 CJ E&M 주가 5거래일 만에 13% 폭 상승

주가는 정치 스캔들, 중국의 한류 콘텐츠 차단 가능성 제기 등으로 11월 이후 22%나 급감했다"며 "하지만, 중국에 판매하는 콘텐츠 비중이 전체 매출의 2%로 추정되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분석했다.

NEW의 상승세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7일 '판도라' 개봉 당일 주가는 전일 대비 3.07% 오른 1만175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1만600원 대비 10.84% 상승한 수치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망 집계 결과, '판도라'는 개봉 이후 5거래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 주말에만 91만 명을 동원하며

## NEW도 '판도라' 흥행에 주가 상승세 개봉 5일간 145만명 매출 117억 돌파

누적 관객 수 145만 명을 돌파했다. 박스오피스 누적 매출액은 117억 원을 넘어섰다.

'판도라'는 원전 폭발이라는 신선한 소재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시점에서 이러한 소재가 더욱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박스오피스는 정체기에 따라 4분기 들어 이렇다 할 흥행작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전국 관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수준에 그치는 등 부진한 점도 NEW의 모멘텀을 강화할 요소로 분석했다.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NEW는 '판도라'

의 관객 수를 500만 명으로 가정할 때 4분기 영업이익자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부산행'처럼 1000만 관객 동원 시 영업이익은 66억 원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135억 원에 달해 '7번방의 선물'과 '변호인'의 흥행으로 2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2013년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내 영화시장의 개봉 편수가 전년 대비 31% 증가했지만, 관객은 늘지 않았다는 점, 중국의 규제 관련 변동성 속에서 해외사업의 지속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의 한국영화 투자 배급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시장 수익성에 위협적인 요인이다.

한 연구원은 "결국 이들 상장사 주가 상승의 기본적 변수는 이익 증가에 있다"며 "흥행작은 모객 수의 증가를 통해 수익이 보장된 형태"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 온다 엔터, 음반사업부 신설 음반시장 본격 진출

에이치엔엔 내년 1월 중 흡수합병

온다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음반사업부를 신설해 엔터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다 엔터테인먼트(옛 차디오스텍)는 지난 5일 음반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엔터사업본부 내 음반사업부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다 엔터테인먼트는 하반기부터 엔터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이소라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소라는 현재 JTBC에서 방영 중인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슈퍼모델 데뷔 25년 차 선배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1일 음반사업부를 신설해 기존 아티스트를 영업함과 동시에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음반사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음반사업부에서 현재 스타배우와 음악프로듀서의 콜라보레이션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며 "특히 무명 신인배우를 발굴해서 직접 육성하는 과정을 거쳐 향후 솔로, 밴드, 힙합, 아이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음반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다 엔터테인먼트는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엔터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에이치엔엔은 내년 1월 중 흡수 합병할 계획이다.

2014년 설립된 에이치엔엔은 '하이드 지킬', '오 마이 비너스', '워킹 맘 육아 대디' 등을 제작한 드라마 제작사다. 120부작으로 지난 11월 인기리에 종영한 '워킹 맘 육아 대디'는 평균시청률이 10%대로 안정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 현재 내년 상반기 중 방영될 신규 드라마와 영화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인수한 매지니먼트 전문기업 오엔엔터테인먼트는 배우 김남길, 성준 등이 대표 소속 연예인으로 있다. 김남길이 출연한 영화 '판도라'는 지난 7일 개봉 후 누적관객 145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성시종 기자 ss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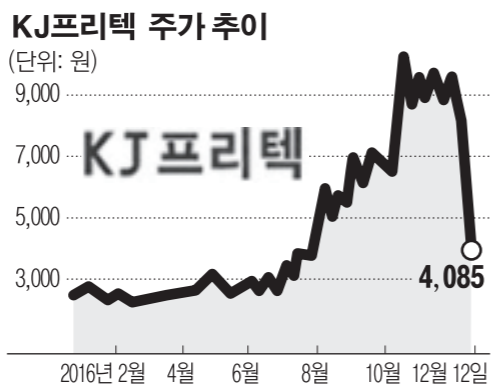
## KJ프리텍, 中 위예화엔터 출신 이사진 영입... 엔터사업 속도 낸다

### 연예인 발굴·육성·음반제작업 등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 목적 추가

코스닥 금융·플라스틱 제조업체 KJ프리텍이 중국 위예화엔터테인먼트와 사업 제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J프리텍은 오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해장, 이상규 위예화엔터테인먼트코리아 대표 등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을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KJ프리텍은 이번 이사 선임을 통해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새로운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



고 사업 다각화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신규사업으로 △연예인 발굴·육성·매니지먼트 △음반제작업 △이벤트사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투자·배급사업 △영화 제작·투자

배급 △연예인 및 콘텐츠 관련 상품 제작·판매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신규 경영진으로 영입될 정 대표 등 4명은 모두 위예화엔터테인먼트코리아 경영진이다. 정 대표는 과거 플레디스 대표로 걸그룹 애프터스쿨과 우주소녀 등을 기획, 육성한 주인공이다.

이 대표는 현재 중국 위예화엔터테인먼트 부사장으로 KJ프리텍의 중국 현지 진출도 긍정적 전망을 열고 있다. 2009년 설립된 위예화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영화 제작과 음반사업, 매니지먼트 등을 총괄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시가총액 6000억 원으로 중국 증시에 상장했다.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한한령'으로 현지 엔터테인먼트 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심

리가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KJ프리텍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또 다른 관심사다.

KJ프리텍 관계자는 "엔터업계에서 정평이 난 신규 이사진의 선임과 중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사업 제휴로 이 분야 사업이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한 사업 다각화로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KJ프리텍은 지난 7월 주가가 하한가(-29.93%)를 기록하는 등 급락세를 겪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조화공시를 요구했고, 회사 측은 "사업 다각화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3차배정 유상증자, 사채발행 등을 검토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최두선 기자 sun@

## 스타를 읽으면 성공의 길이 보인다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톱스타 12명의 성공비결 그 도전과 열정, 철학을 집중 조명하다

한류 스타들의 생생한 컬러 화보 160여 점 수록

★ 스타(성공)학

Case #01



장근석

선과 권, 전략으로 성공 거둔 아시아의 프린스

Case #02



송혜교

그녀의 성공 = 기회+노력+행운. 겸손이로 대륙을 사로잡은 '한류 여신'

Case #03



손예진

대중성과 흥행성, 연기력이 최고인 여배우 톱스타! 송우로 흥행 편

Case #04



김태희

연기자로서 완벽한 성공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 노력하는 스타!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그녀

Case #05



정나라

백작스타에서 전정환 톱스타까지 명왕스타, 중국 '소천후'가 되다

Case #06



하정우

백경 아닌 실력으로 일군 성공 마성의 매력적인 '천만 배우'

Case #07



이승기

꿈꿔왔던 노력이 성공비결 최고의 트라블 크라운 스타

Case #08



이민호

아시아 최고 톱스타가 된 원동력은? '꽃보다 예쁜 남자'

Case #09



서인국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준비된 스타 '만능 엔터테이너'

Case #10



수지

스물한 살의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의 원동력은? 국민 첫사랑의 아이콘

Case #11



김우빈

절치한 준비로 데뷔 2년 만에 성공한 스타 21세기 한국의 '제왕' 단

Case #12



나영석

예능 트렌드를 선도하는 최고의 스타 연출자 그 힘은? '태능계 빅데이터'의 손



이투데이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TEL. 02)799-2699



결산회사 배당 받으려면... 30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12월 결산회사 배당을 받으려는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 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12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상기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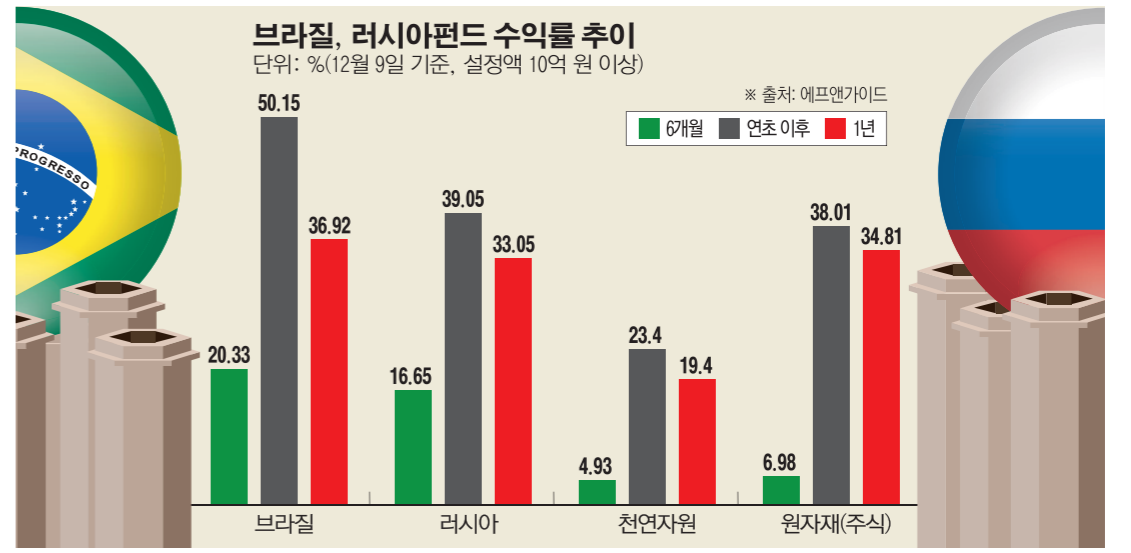
유혜은 기자 euna@

탄핵 가결 후폭풍... 정부 정책 변화·중단 가능성 우려  
진웅섭 “비상대응체계 레벨업”

금융위·금감원 리스크 점검 회의  
“시장 위험 요인 모니터링 강화...  
외국인 채권 매매거래지표 개발”



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감독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 원장은 “시장 상황 점검반을 확대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레벨업’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인 매매동향 및 이상거래 등을 적시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의 추가 개발 등 시스템 정교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또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각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진 원장은 “증권·보험사의 경우 채권가치 하락으로 자본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필요 시 자본 확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n@



산유량 감산 합의 유가·원자재값 상승

웃음꽃 피는 ‘러·브 펀드’

‘브라질’ 4분기 저점 찍고 성장을 반등  
연초 이후 펀드 수익률 50% 넘어 1위  
‘러시아’는 39% 올라... 2년째 플러스

브라질과 러시아 펀드가 수익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원자재와 국제원유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해당국 증시가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13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브라질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12월 9일 기준)은 50.15%에 달했다. 같은 기간 러시아펀드 수익률도 39.05%까지 올랐다. 브라질과 러시아 펀드는 주요 국가·지역별 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원자재(주식)와 천연자원펀드도 각각 38.01%, 23.40%의 수익률을 거뒀다. 이는 지난달 30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산유량 감산 합의에 이어 이달 10일 OPEC 결정에 비(非) 회원국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글로벌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급등세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구리 가격은 미국 대선 이후 15%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연과 납 가격도 각각 13.03%, 10.46% 올랐다. 중국 철광석 수입 가격(CFR 기준)도 같은 기간 12.64% 상승했다. 업계는 OPEC의 감산 결정으로 유가 상당 레벨이 55~60달러 수준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경제회복 및 유가안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올 3분기(7~9월)까지 10분기 연속 역성장 기조를 이어온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4분기를 저점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브라질이 내년 1분기부터 역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봤다. 2017년 연간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 성장할 것이라 관측이다. 박승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반등은 1차적으로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종 중 하나인 원유 수출 증가뿐 아니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자극, 전반적인 상품 가격 수준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브라질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원자재 가격 상승이 브라질의 경성수지를 개선시키고 해외화 환율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나아가 브라질 기업들의 실적회복과 고용개선, 소비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박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4주 연속 신중국 자금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출 규모는 11월 중순 대비 큰 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달러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신중국 자금유출 압박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펀드도 유가 상승의 대표적 수혜 상품으로 꼽힌다. 러시아펀드는 국가·지역별 펀드 가운데 유일하게 1개월, 3개월, 6개월 등 최근 2년 수익률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문동열 삼성증권 연구원은 “신중국기들의 주가지수는 2014~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다. 최근 선진국 대비 상대 강도는 약하지만 상승 추세가 정착되고 있다”며 “특히 브라질과 러시아 증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펀드멘탈 요인과 더불어 추세 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guty@

**유쾌한 투자 유안타 증권**

웃어라! 대한민국!

유안타증권은 대한민국을 넘어 범종화권 금융시장의 광활한 아시아 금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오직 고객의 안정적인 수익률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투자상품과 다양한 투자기회로 고객의 행복을 앞당깁니다



Stock blog

증시도 춤추게 만드는 ‘탄핵 가결’

지수 끌어내리던 ‘불확실성’ 부담 덜어  
헌법재판소 상식선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식 시장 상승 엘리 당분간 지속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기뻐한 이들은 대다수 국민만이 아니었다. 탄핵 가결 소식은 우리 증시도 춤추게 만들었다. 그간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짓누르던 ‘불확실성’ 부담을 덜어냈기 때문이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5포인트(0.13%) 상승한 2027.24에 안착했다. 탄핵 투표가 진행됐던 지난 9일 소폭 하락 마감했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한때 570선까지 밀려나 우려를 한몸에 받던 코스닥도 하루 만에 8.73포인트(1.47%) 상승하며 603.08을 기록, 지난달 23일(600.29) 이후 600선을 회복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증시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악재 그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그간 시장에는 탄핵, 조기퇴진, 하야, 거국 내각 구성 등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했다. 이처럼 불확실하던 정책 흐름이 탄핵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경우의 수는 단숨에 정리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의 브라질 증시 흐름을 따라

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탄핵 심판을 받은 후 8월 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와 함께 브라질 증시는 강세를 이어갔다. 연초 4만 포인트를 밑돌던 보베스파 지수는 탄핵 심판 시점에 5만 포인트를 돌파했고, 호세프 대통령이 물러선 후에는 6만 포인트를 넘어섰다. 브라질과 우리의 상황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는 점, 정치 리스크가 제거됐다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탄핵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불거진 중국과의 상호보복 고리를 끊을 수 있으리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개시하면서 화장품, 레저, 미디어 등 중국 소비 관련 업종 주가는 20% 이상 급락했다. 중국 관련 소비주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7% 규모다. 반등할 경우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는 13~1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이미 FOMC의 연방기금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역시 시장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부추기던 대내외적 요소가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 당분간 상승엘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혜은 기자 eu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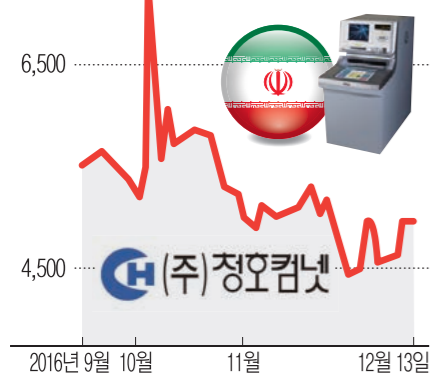




# 청호컴넷, ATM 기기 들고 이란 시장 '노크'

〈현금자동입출금기〉

## 청호컴넷 주가 추이



## 이란 정부 화폐 10리알 1토만으로 축소 '디노미네이션' 추진 대통령·헌법수호위 승인만 남아... 1000억대 물량 공급 기대

청호컴넷이 이란 기업과 8000만 달러(1000억 원대) 금융자동화기기 공급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청호컴넷 관계자는 "이란 페르코 관계자들이 2월과 7월 방한한 이후 최근 11월까지 세 차례 방한해 현금자동입출

금기(ATM)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이후 현대 중공업이 이란으로부터 10여 척의 선박을 수주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유일한 ATM 제

조기업 청호컴넷 역시 이란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7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화폐 단위를 축소하는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10리알을 1토만으로 변경하는 안의 내각 승인이 완료됐다. 추후 대통령 등의 등 과정을 거쳐 헌법수호위원회 승인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청호컴넷은 지난 2013년 이란 페르코

(PEBCO)와 8000만 달러 규모의 ATM 수출계약을 맺었으나 이란 경제 제재로 공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란 경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고 화폐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청호컴넷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청호컴넷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 페르코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갖는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이란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다양한 해외 국가로 진출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i78@

## 공시 돋보기

# 아리온, 印尼 최대 화장품 유통기업과 수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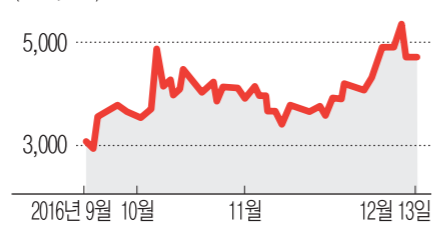
## 제이에스, 70여 개 브랜드 중 유통 인도네시아 전역 160개 매장 보유 아시아 뷰티전문점 샵에도 공급

아리온이 인도네시아 대기업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후 첫 사업으로 화장품 사업에 나선다.

12일 아리온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니 최대 화장품 유통기업 중의 하나인 C&F perfumery-PT Izone에 대규모 화장품 수출을 위해 제이에스글로벌과 인도네시아 공동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F perfumery-PT Izone은 1994년도에 설립돼 인도네시아 전역에 160개의 판매점을 가지고 있다. 80개의 독립 매장과 centro 백화점을 포함 약 80개의 백화점

## 아리온 주가 추이



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글로벌 럭셔리 향수를 인도네시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화장품 공급 체인이다. 아리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제이에스글로벌은 지난 2013년 참존화장품 중국 독점 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아모레 외 70여 개의 브랜드의 중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화장품 부문에서 중국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며 중화권 뷰티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가입자 수가 50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화장품 소싱 플랫폼 줘메이에 한국의 화장품 아웃소싱 및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제1번터로도 알려져 있다.

또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에 약 300개 매장을 가진 뷰티전문점 드러그스토어 사샤에도 국내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공급하고 있다.

아리온은 소속 아이돌 그룹을 활용 YG의 문샷처럼 한류 코스메틱 브랜드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최대주주가 인도네시아 유력 기업의 투자조합인 시나르마스조합과 CBS 홀딩스로 바뀌고 제3차배정유상증자와 사모전환사채 발행으로 총 6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결정한 아리온이 발 빠르게 인도네시아 관련 사업에 나서고 있어 시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i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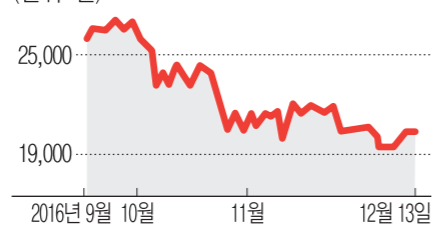
# 바디텍메드 '헤모크로마' 美 시장 공략 시동

〈혈액분석기〉

## 다나하사 특허 회피한 최초 제품 FDA 프리서브미션 인허가 접수 의료진 누구나 손쉽게 사용 가능 가성비 좋아... 점유율 20% 기대

병원용 현장진단 전문기업 바디텍메드가 현장진단용 헤모글로빈 분석기 헤모크로마의 미국 FDA 인허가 서류 접수를 완료했다. 바디텍메드는 지난 9일 헤모크로마의 미국 FDA 인증 최종 제출을 완료했다며, 이는 FDA와의 두 차례에 걸친 프리 서브미션(Pre-submission) 후 이루어진 것으로 조속한 심사완료가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 바디텍메드 주가 추이



FDA의 프리 서브미션은 소규모 병원과 의료 기관에서 임상병리사 외의 의료진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과 FDA의 의료 기기 제품 허가(510K)를 동시에 받기 위한 사전 절차다.

헤모글로빈 분석기는 다나하사의 헤모큐(Hemocue)가 미국 시장의 9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혈액은행인 미국 적십자(ARC)에 독점적으로 기기 및 소모품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헤모크로마는 기존 헤모큐와는 다른 파장과 측정 방식을 도입해 헤모큐사의 강력한 특허를 회피한 최초의 제품"이라며 "빠르고 정확한 결과의 표시, 1000개 이상의 결과값의 저장과 낮은 보수유지비 등 미국 시장에서 헤모큐와 성능 및 가격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바디텍메드는 최근 당선된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당선자가 의료비를 포함한 제비용 절감을 최대 화두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경쟁을 통해 최소 10~20%가량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파나진, 파나뮤타이퍼 임상연구 세계폐암학회 발표

PNA 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전문 기업 파나진의 파나뮤타이퍼 EGFR 키트를 사용해 수행한 임상연구가 세계 최고의 폐암관련 학회인 세계폐암학회(WCLC)에 발표됐다.

파나진은 국내외 병원 연구진들이 파나뮤타이퍼 EGFR 키트를 활용해 액체생검으로 수행한 임상연구 결과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17회 세계폐암학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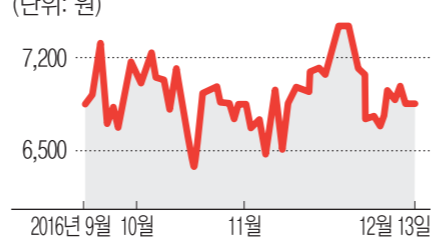
ISRT 병원 연구진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아 치료 중인 비소세포암 환자들에게서 항암제 내성 심피세포수용인자

(EGFR) 돌연변이 발생 여부 등을 관찰하기 위해 파나뮤타이퍼로 주기적으로 혈액 내 순환종양유전자(ctDNA)를 검사했고, 검사결과와 약물반응성이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액체생검 임상검체에서 파나뮤타이퍼와 이미 조직생검 기반의 표준검사법으로 자리매김한 파나진의 PNA클램프(PNAClamp™)를 비교한 결과, 액체생검 기반의 진단에는 향상된 민감도를 지닌 파나뮤타이퍼가 유용하다고 결론 내렸다.

파나진 관계자는 "국내외 연구진에 의해 지속적으로 파나뮤타이퍼 EGFR 키

## 파나진 주가 추이



트의 성능이 임상적으로 검증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2017년 1분기에 품목허가가 완료되면 암 관련 표적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한 돌연변이 검사들이 액체생검 기반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IPO

# 다중 체외질병진단 플랫폼 기반 '피씨엘' 코스닥 통해 글로벌 진단전문 기업으로

## 고위험군 바이러스 진단 제품 佛·獨 판매로 세계시장 진출 150만주 공모... 19~20일 청약



(Cancer-6)의 유럽 임상을 앞두고 있다. 또 원천기술(SG CapTM)을 이용한 다중진단 키트 제작, 연구용 시약 판매, 약물

“상장을 계기로 진단시장에서 피씨엘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글로벌 진단전문 기업으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김소연(사진) 피씨엘 대표는 12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회사가 개발한 원천기술과 다중진단 플랫폼을 활용한 체외진단 개발 영역은 확장이 무한하고, 향후 안정적 매출 확대도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8년 설립된 피씨엘은 다중 체외질병진단(면역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고유의 면역 다중진단원천기술(PCL SG CapTM)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중면역진단 분야에서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글로벌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 바이러스 다중진단 임상과 제품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회사는 현재 다중면역진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수혈 전 고위험군 바이러스 진단키트 제품(Hi3-1)의 프랑스, 독일로 판매를 개시하면서 세계시장 진출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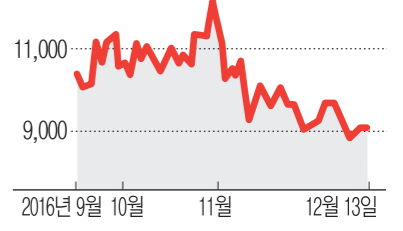
제품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신속진단(POCT) 제품인 인플루엔자 감염 진단 시약(Ai)을 내년 출시할 계획이며, 다중 암 동시 스크리닝 제품

최근 체외 진단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시장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체외 진단 시장은 지난 2012년 443억3000만 달러 규모에서 내년엔 626억300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약 7.2%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주요 제품인 ‘Hi3-1’은 다국가,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민감도 100%, 특이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HIV)과 C형 간염(HCV)에서 각각 99.98%, 99.82%를 만족했다.

피씨엘의 총상장예정 주식 수는 892만1164주이며 이 중 공모 주식 수는 150만 주로,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1만1300~1만4400원이다. 피씨엘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69억5000만~21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공모자금은 연구 개발과 설비 증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14일과 15일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해 19일과 20일 청약

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며,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김우람 기자 hura@

## 자이글 주가 추이



## 자이글, 새 아이템 '넥시블' 오늘 CJ오쇼핑에서 만나요

자이글이 새로운 아이템 '넥시블'을 선보인다.

웰빙 아이디어기업 자이글은 자사의 헬스케어 웰빙 용품 1호 넥시블을 13일 오후 CJ오쇼핑에서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이글이 웰빙 아이디어기업으로서 본격적인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넥시블은 목(neck)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플렉시블(flexible)이 합성된 브랜드로 다양한 체형과 자세에 맞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서 하는 목베개’ 콘셉트로 제작돼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컴퓨터 업무나 장시간 책상에서 씨름하는 회사원과 학생, 장시간 TV 시청을 하는 사람, 핸드폰 사용과 잦은 출장 등으로 평소 목이 빠르고 피로한 사람, 장시간 비행기나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등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원력을 갖추고 편안한 메모리폼 쿠션, 가슴지지쿠션, 손지지 쿠션, 본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쉽고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

메모리폼 쿠션은 부착형으로 벨크로(찍찍이)가 적용돼 자세에 따라 신속하고 견고하게 탈부착할 수 있다. 지퍼 타입으로 제작해 커버만 따로 세탁할 수도 있어 사용 후 관리까지 편리를 더한 제품이다.

자이글 관계자는 “넥시블은 자이글이 고객의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는 웰빙 아이디어 기업으로서 생활기전 시장에서 헬스케어 웰빙 용품 시장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한다는 의미”라며 “자이글 그림을 성공시킨 노하우로 마케팅 및 영업 판매에 역량을 집중해 자이글 제 2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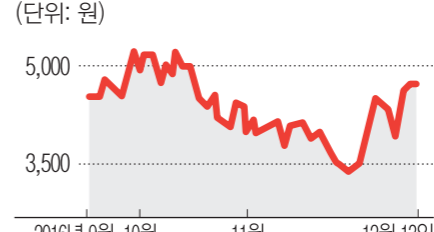
# 젬백스테크, 한국콜마 손잡고 뷰티시장 진출

젬백스테크놀러지가 한국콜마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글로벌 뷰티시장의 공동이익 발굴과 새로운 가치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젬백스테크놀러지는 지난 8일 한국콜마와 뷰티 연계 디바이스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과 뷰티 기술을 융합해 고객에게 또 다른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사는 뷰티 디바이스 개발 및 서비스 시장 개척을 위해 상호 간에 협력하며, 서비스와 공동 기획 및 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콜마는 미주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서 서비스 유통-마케팅을, 젬백스테크놀러지는 글로벌 수준의 뷰티디바이스 개발-제조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젬백스테크놀러지는 스마트폰부터 스마트워치에 이르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 젬백스테크놀러지 주가 추이



스 모듈 및 뷰티&헬스케어 기술을 갖추고 있는 디바이스 전문 기업이다. 또한 계열사인 바이오기업 젬백스캐나엘과 삼성제약 등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한국콜마와의 다양한 융합기술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연구개발 및 제조하는 ODM(제조업자개발생산) 기업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Re:Energy

에너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다시 생각합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에너지를 위해-

그것은 이제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문제이며

인류가 꼭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LG의 에너지솔루션이 함께합니다.



●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 LG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태양전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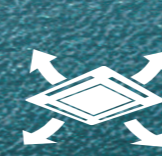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 LED/OLED 조명



스마트 빌딩 시스템



스마트 시스템 에어컨



고효율 단열 시스템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